

〈에칭가스〉

“韓기업, 中서 불화수소 조달”...속도내는 ‘脫일본’

“빈화그룹과 공식 협력체계”
中 언론 ‘대규모 수주’ 보도
“삼성, 일본외 제품 테스트”
日 내부서도 우려의 목소리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 ‘탈(脫)일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기반 표면 처리에 쓰이는 ‘불화수소(에칭가스)’의 경우 일본 대신 중국이 유력한 조달처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중국 상하이증권보는 산동성 소재 화학 업체인 빈화그룹이 일부 한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대규모 불화수소를 수주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체 조달처로 중국을 선택했다”며 “빈화그룹이 제품 검사 등을 거쳐 한국 기업과 공식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빈화그룹 주가는 17일 4%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LG디스플레이의 고위 기술 책임자가 중국산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를 실제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선 최소 한 달 이상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재료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전날 나혼게이지이신문도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의 기업에서 만든 불화수소의 품질과 성능 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삼성이 제조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과 대만, 한국 업체 제품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일본 이탈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뚫게 되면 일본이 오히려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한영대 기자 yeongdai@



이투데이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핀테크 챌린지쇼’를 주제로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융권의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하고 관련 기업의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핀테크 랩 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강연과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모의 면접도 진행된다. 신용길(앞줄 왼쪽부터) 생명보험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대유 핀테크산업협회장, 최중구 금융위원장,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이동빈(뒷줄 왼쪽부터) Sh수협은행장, 조수형 우리은행 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창호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종구 “핀테크에 ‘실리콘밸리 DNA’ 심겠다”

〈금융위원장〉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특정 아이템이 아닌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그들이 창업한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 변화에 적극 참여한다면 우리 금융권에서도 이런 사례를 접할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 주제는 ‘핀테크 챌린지 쇼’다. 금융권의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하고, 관련 기

금융권 디지털 플랫폼 체험의 장... IR엑스포도 진행 투자유치 설명회·예비창업자 강연...모의면접 실시

업의 혁신 기술을 알리는 자리다. 핀테크 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강연도 진행된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모의면접도 실시한다.

최 위원장은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을 요구하는 업무가 늘고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우려와 달리 전문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이론 경제학자인 슈페터(Schumpeter)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 과정이란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이 활성화되면 금융은 물론 연관 산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혁신을 선도하는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면 간접적 고용 창출도 가

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도 금융의 혁신과도 약속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능력으로 무장한 젊은 인재들을 포용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상장사와 투자자 간 직접 만남을 목적으로 기획한 ‘2019 IR EXPO’도 진행됐다.

박선현 기자 sun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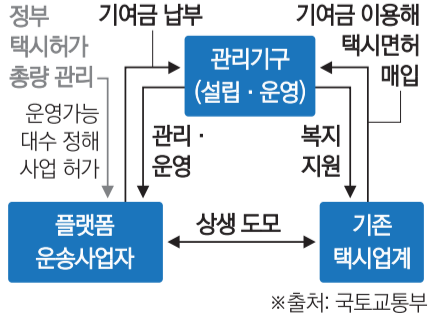
타다·카카오T ‘플랫폼 택시’ 합법화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업체 기여금 받아 택시면허 매입
렌터카 영업 보류 ‘실효성 의문’
서비스 강화하면 요금 오를 듯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된다. 영업 허가를 받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은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의 택시면허를 매입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는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제도 개편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서비스 제고로 전반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타다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영업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

한 것이다. 다만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감차사업과 플랫폼 기여금으로 매년 1000대의 면허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700억~8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운영 대수 또는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웨이고 같은 가맹사업에 대해 면허 대수 기준을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 택시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카카오T 같은 중개 앱 플랫폼 사업도 신고제를 통해 제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등도 허용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포스코 광양3고로 ‘초대형 용광로’로 재탄생

〈5500㎡ 이상〉

1228억 투입...12년 만에 개수
‘초대형 고로’ 5개서 6개로 늘어

포스코가 광양 3고로를 초대형 고로(5500㎡ 이상)로 증축한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광양 3고로 2차 개수를 위해 1228억 원을 투자한다. 철강업계에서 ‘개수’는 넓은 의미의 고로 정비 공사를 뜻한다.

포스코는 이번 개수를 통해 광양 3고로를 정비하고, 동시에 내부 용적(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광양 3고로의 용적은 기존 4600㎡에서 550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용적량 5500㎡ 이상의 고로를 ‘초대형 고로’로 본다.

고로 용적 증가는 철강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 고로 준공이 완료돼 쇳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출산비(고로 단위 부피당 쇳물 생산량)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광양 3고로의 개수 작업은 12년 만이다. 포스코는 2007년 이구택 회장 재임 당시 이 고로의 1차 개수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개수를 통해 광양 3고로의 내부 용적은 기존 3800㎡에서 4600㎡로 21% 확대돼 쇳물 생산량은 개수 전보다 65만 톤 늘어난 바 있다. 광양 3고로의 개수가 완료되면 포스코가 보유한 초대형 고로는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현재 포스코가 보유한 초대형 고로는 광양 1·4·5고로와 포항 3·4고로다. 포스코는 국내에 총 9개의 고로(포항 4개·광양 5개)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내년 본격적으로 광양 3고로 개수 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수 작업을 위해서는 3개월가량의 고로 셋다운(가동중지)이 필요하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GS그룹 회장>

허창수 “日 규제 대응 과감한 사업조정도 할 수 있어야”



3분기 GS 임원모임

허창수<사진> GS 회장이 전 계열사 경영진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 타워에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3분기 GS임원모임'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 중인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가, 환율 등 경제지표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만큼 GS도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반도체, 정유·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반도체, 정유·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상반기 실적 저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핵심역량 확보해야”

각 계열사에 대응책 마련 주문

인 수출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경제지표에 대한 정확한 예측 노력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수출 제재로 인한 영향은 아직까지 반도체 기업에 국한돼 있지만, 추후 규제안까지 나오게 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각 계열사에 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차별화된 핵심역량 확보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당부했다.

먼저 허 회장은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우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핵심사업의 경쟁력은 더욱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회장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확

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살펴서 나만의 강점은 더욱 향상시키고, 약점은 보완해 가야 하며 다른 사업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찾아 그 장점을 배우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에 대한 투자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미래의 조직 역량을 키워 주길 바란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고객의 니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 관계자는 “허 회장은 민첩한 실행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위해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평상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빌 게이츠, 부자순위 3위로 하락... 루이비통 회장에 밀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

아르노 회장, 1076억 달러 2위
올해에만 390억 달러 늘어
1위는 베이조스 1250억 달러
이건희 등 한국인은 5명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빌 게이츠 MS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가 블룸버그가 선정하는 세계 부자 순위에서 7년 만에 3위로 밀려났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게이츠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에게 밀려 세계 부자 순위가 3위로 떨어

졌다. 게이츠가 2위 밑으로 밀려난 건 억만장자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세계 부호들의 일일 주식 가치 변동을 반영해 500위까지 자산 순위를 매긴다.

아르노 회장은 LVMH 주가가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재산이 1076억

달러(약 127조 원)에 달해 게이츠의 1074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아르노 회장은 올해 재산이 390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오른 부호 500명 중 가장 많다. 다만 블룸버그는 자선활동과 기부가 아니었다면 게이츠가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는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35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아르노는 지난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CEO)와 게이츠에 이어 1000억 달러 클럽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이들 세 명의 재산을 합치면 S&P 500에 속한 거의 모든 기업의 각 시가총액을 웃돈다. 월마트와 엑손모빌, 월트

디즈니 등의 가치가 세 부호의 재산보다 적은 셈이다.

이번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500명에는 한국인 5명도 포함됐다.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이 169억 달러 재산으로 한국인 중 가장 순위가 높은 72위를 기록했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9억 달러로 306위였고, 김정주 NXC 대표는 56억 달러로 326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52억 달러로 364위를 각각 차지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4억 달러로 465위를 기록했다.

지난번 500인 명단에 들었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에는 빠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

(단위: 억 달러, 7월 17일 기준)

순위	부호	순자산
1	제프 베이조스	1250
2	베르나르 아르노	1076
3	빌 게이츠	1074
4	워런 버핏	839
5	마크 저커버그	795
6	아만시오 오르테가	672
7	래리 엘리슨	618
8	래리 페이지	566
9	카를로스 슬림	564
10	프랑수아즈 벵탕쿠르 메이에스	563
...		
72	이건희	169
306	이재용	59
326	김정주	56
364	서정진	52
465	정몽구	44

출퇴근재해 부담없이 산재신청하세요!

노동자-사업주 모두에게 WIN-WIN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2018. 1. 1.부터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모두에게 WIN-WIN!

- 01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 병원 치료비(요양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병증관리,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02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제해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 01 산재보험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활,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2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03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보험사 포괄과 합의서 산재보험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렌터카 버리고, 택시면허 사라니”... ‘혁신’ 떼인 ‘타다’

국토부의 ‘반쪽 상생안’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업계를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 기존 택시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택시 시장에 참여한 플랫폼 업체가 기여금을 내면 그걸로 택시면허를 매입해 제공하는 구조다. 다만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고 그동안 논란이 컸던 카풀과 렌터카 영업은 이번 방안에서 빠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초기 비용부담도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우선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최소한의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여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운송사업 진출을 허용한다. 또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택시 상단에 갖등을 달고 차량을 색칠해야 하는 등의 차량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웨이고 같은 가맹방식 플랫폼과 카카오톡 같은 중개 방식 플랫폼 사업자 진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 식 영업은 이

‘기여금 제도’로 제도권 들렸지만 택시 반발에 렌터카 영업은 제외 “**‘신산업에 진입장벽만 더 높아져’ ‘면허 구매’ 초기비용도 큰 부담**

반 방안에서 빠졌다. 택시업계가 렌터카 영업에는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현재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납 혹은 분납 등 다양한 형태로 내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식과 기여금 관리 방법은 국토부가 실무논의의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플랫폼 업체는 차량 1대당 월 기여금을 40만 원 수준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금으로 쌓인 재원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 활용한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00대가량의 차량을 운영하려면 일시납으로 700억~800억 원, 월 분납으로 매달 40억 원가량의 기여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융시장 조달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개편 방안에 대해 기존 택시와 플랫폼 업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



김현미(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했다. 타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앞으로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우 폴러스 대표는 “스타트업의 공정

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역시 대표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모빌리티 업계는 기여금부터 새로운 차량 조달을 위한 자금까지 다양한 자금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차종·외관·요

금 등 택시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택시부제 자율화, 양수자격 완화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출처: 국토교통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중개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 차량 외관 등 규제 완화 - 사회적 기여금 납부	- 기존 택시와 결합 - 현재 가맹사업 관련 규제 완화	- 신고제 - 규제샌드박스 적용
신규 모델 (다양성 수용)	웨이고 등 가맹사업 진화형	카카오 T 등 택시중개 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개인 택시 규제 합리화	택시 감차사업 개편
- 처우 개선 - 승차거부·불친절 문제 근절	- 면허 양수조건 완화 - 부제 영업 자율화	-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반납 시 감차대금 연금 형태로 지급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택시	기분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 자격관리 강화 - 280개 특정범죄 경력조회	-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서비스 평가 강화 - 서비스·안전 교육

택시업계 고질병 ‘사납금제’ 대수술 ‘월급제’ 도입엔 승차거부 사라질까

우버를 시작으로 타다, 웨이고택시, 카카오톡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는 이유는 불친절,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택시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그동안 승차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것이 사납금 제도다. 사납금 제도는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약 13만5000원)으로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처우 개선은 물론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전액관리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 40시간 이상을 보장하는 택시법은 2021년 2월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는 소정근로시간 주 5~28시간으로 기본금이 50만~140만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기본월급은 약 17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별 서비스 표준화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냄새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 친절한 택시기사, 과속·신호위반 없이 법규준수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별로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결과 우수 법인택시에는 종사자 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과태료 처분 등 벌점 누적 시 면허취소, 감차 등 제재 실효성도 확보한다. 법규 위반이 많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 시 승차 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하면 강제 배차와 사전예약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 택시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우리 부부 노후 걱정 &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

작은병, 큰병 치료비 걱정 & 평생안심NH유니버설건강보험(무배당)

깜박깜박 치매 걱정 & 백세시대NH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무배당)

*본 광고는 NH농협생명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고객의 긴 인생은 물론 오늘의 걱정까지 책임지는 보험

육아대디 박평은님의 노후 걱정에도
워킹맘 안신영님의 건강 걱정에도
오십대 유상하님의 치매 걱정에도

NH농협생명이 함께 합니다

NH농협생명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통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2116호(2019.7.2)

이 시대의 트렌드

올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즐기는 뉴트로 감성여행 전국 팜스테이 마을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농협

“핀테크·재테크·취업... 알짜 정보 넘쳐나네요”



이투데이 주최로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석의현 커리어빅 대표가 '은행을 JOB이라!' 주제로 은행권 취업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예비 금융인 등 3500여명 참관
8개관 혁신 체험·상품 비교 분석
“IR 질문하고 싶은 것 많았는데
30분 시간 제한 아쉬움 남아”

“금융상품 비교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넘쳐났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핀테크 챌린지쇼(Fintech Challenge Show)' 참관객들의 소감이다. 개막일인 이날 행사장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3500여 명의 참관객이 몰렸다. 참여자들은 은행금융관을 중심으로 △보험금융관 △정책금융관 △증권관 △핀테크관 △일반홍보관 △세미나관 △청춘도전관 등 8개 관에서 금융권의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하고 관련 기업의 혁신 기술을 체험했다.

보험금융관 KB손해보험 부스를 찾은 배신규(77) 씨는 “지금 가입한 보험은 만기가 다 돼서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며 “이 행사에서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 상담을 받아보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금융관 신한금융그룹 부스에서 핀테크 체험을 한 김아름(23) 씨는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 ‘솔(SOL)’ 어플만 썼는데 오늘 행사장에서 보험, 카드 등 다른 앱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유용한 게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김희선(18)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은 “전반적으로 은행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줘서 기분이 좋다”며 “각 회사의 특징적인 상품 설명을 들을 때 여러 은행

상품의 장단점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증권관을 둘러보던 맹경도(18) 덕수고등학교 학생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등 증권사에 특히 관심이 많다”며 “블록체인에도 관심이 많아 내일은 비트코인 관련 강의도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청춘도전관에서 실시된 ‘은행권 모의면접’에 참여한 손지민(19)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학생은 “IT쪽을 전공해 금융권 보안업무에 관심이 많다”며 “실제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다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고 했다.

최혜영(18)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니 은행 텔러 업무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모의면접을 통해 은행권 취업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다짐을 밝혔다.

황승남(18) 덕수고등학교 학생은 “재경관리사 자격증 보유는 물론 현재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공부하고 있다”며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에 들어가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세미나관에서 열린 IR기업설명회에 참석한 김미라(52) 씨는 “전반적인 투자 개요 설명은 들을 수 있었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시간이 부족해 궁금한 점을 다 묻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동산 강연을 들은 이민상(43) 씨는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하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강남 등 투기조성지역이 안정적 투자처라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 KEB하나은행 부스에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은행권 모의면접을 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객 기억에 남는 은행원 되겠습니다”

모의면접 수상 소감

“금융대전 모의면접을 통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상업고등학교 3학년 박준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선 은행권 취업 모의면접이 진행됐다. 이날 박준서 군은 IBK 기업은행의 최우수 면접자로 선정됐다.

박 군은 “학교 홍보부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좋게 보신 것 같다. 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금융권을 꿈꿔왔고 항상 1순위는 은행원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에 취업해 큰 도움이

최우수 6명 상패·상금 수여

“간단 명료한 답변에 좋은 평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법 배워”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모의면접에는 KB국민· 신한·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곳의 은행 채용담당자들이 박 군을 포함한 6명을 최우수 면접자로 뽑아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금융고등학교 3학년 박수연 양을, 신한은행은 대동세

무고등학교 3학년 신지원 양을, KEB하나은행은 천안상업고등학교 3학년 이유빈 양을, 우리은행은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박소형 양을, NH농협은행은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유세은 양을 최우수 면접자로 선정했다.

잊히지 않는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유세은 양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수상해서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짧게 말했다. 최우수 면접자로 선정된 이유를 묻는 말에 유 양은 “면접관과 눈을 계속 마주치려고 노력했고,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강점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박찬신 기자 jinsan@

“궁금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면접관 자청한 이대훈 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석해 직접 학생들의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이 행장은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은행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장은 예고 없이 농협은행 모의면접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묻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은행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은행 취업 현실적 조언·격려 명함 나눠주며 사진도 촬영

도 아끼지 않았다.

이 행장은 모의면접장을 떠나기 전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을 남겼다. 아쉬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으며 격의 없는 시간을 보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학생들은 이 행장님의 급작스러운 방문에 크게 환호했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은행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상대로 모의면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고, 은행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면서 “평소 권위의식이 없는 행장님의 개방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신기술 '先 허용 後 규제' ... 혁신금융 가속도

민병두 정무위원장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할 '행정규제기본법'이 17일 본격 시행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민 위원장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최종 조율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융을 포함한 전 분야의 신기술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비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위원장은 17일 열린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오늘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는 날"이라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기본법인데, 이는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금융혁신법과 함께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100개를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를 위해) 샌드박스에 넣는 것이 목표인데 80%가 실현됐다"며 "정부가 해당 과제 마무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행정규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혁신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화두로 삼아 4차

민 위원장 "금융 경쟁력 강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제품·서비스 걸림돌 신속 정비 규제 샌드박스 과제 100개 목표"

산업혁명 시대 변화 속도에 발맞춰 출범 직후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이날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혁신 5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3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재석 235인 가운데 228인의 찬성을 얻었다.

행정규제기본법 통과 당시 민 위원장은 "미래는 무엇을 규제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법안 통과로)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4개 규제혁신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과 4월 시행됐다. 해당 법안으로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규제는 대부분 법이나 정책이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빠송'의 부동산 전망 "입지·상품성 밀바탕 희소성이 가격 결정"

필명 '빠송'으로 유명한 김학렬(사진) 더리서치그룹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 '제 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은 우상향이라 하지만, 결국 문제는 입지와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상승기나 하락기와 같은 흐름보다는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희소성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직장접근성을 강조하며 강남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김 소장은 "외부에서 온 업무인구까지 포함하면 강남의 일자리는 300만~500만 이상"이라며 "배후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똑같은 패턴으로 매수시장을 선정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상승 효과는 있어야 하며, 입지 가치가 높아지는 것만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

IR EXPO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찾은 한 관람객이 '디오스텍'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1로 투자 질의응답 좋네요"

상장사 20여 곳 투자 상담 주력사업·성장동력 등 소개

이투데이가 주최한 '2019 IR EXPO'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Money&Talk'을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 행사는 상장사와 투자자 간 직접 만남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한미약품 △에스모 △한국토지신탁 △다날 △알파홀딩스 △릉투코리아 △나무가 △오르비텍 △미스터블루 △디오스텍 △슈피겐코리아 △유비벨록스 △네패스신소재 △필로시스헬스케어 △자연과학 △팍스넷 등 20여 개 상장사가 참여했다.

다날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와 기업 설명회(IR) 관련 미팅을 여러 번 했다"며 "B2B(기업 간 거래) 기업 특성상 회사를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이 방문해 상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배근환 미스터블루 이사는 "많은 학

생들이 찾아와 취업, 직무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며 "개인투자자, 기타 참가 기업 관계자들도 직접 방문해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네트워크를 다지는 귀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관에서는 자연과학, 슈피겐코리아, 필로시스헬스케어 등의 기업이 IR을 열어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력 사업분야, 신성장동력 등을 직접 소개했다.

IR엑스포를 찾아 기업 부스를 둘러본 개인투자자 최모 씨는 "그동안 기업 설명회가 여의도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따로 열려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며 "참가해도 소규모로 진행돼 여러 질문을 던지기 어려웠지만, 이번 행사는 부스에서 일대일로 다양한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기업설명회 외에 세금, 블록체인, 채테크, 부동산 등 금융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위해 다양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정희 기자 jih@

KB 금융그룹 | 국민 금융파트너

아이의 미래, 더 밝아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자녀보험이 든든해야
아이들의 내일도 더 밝아진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소중한 우리 아이 미래까지 든든하게
KB The드림아이종은자녀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6호 (2019.01.0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 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KB 손해보험

美 스틸웰 차관보 “한일 갈등 해결 노력 지원하겠다”

강경화 장관 등 당국자들 잇따라 만난 뒤 약속 회견 “한미 관련 모든 이슈 관여”... 적극 중재 나설지 주목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은 가까운 동맹이자 두 국가의 친구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티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일관계의 긴장 상황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고 있다”며 “강 장관과 윤순구 차관보가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나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우리의 두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진실은 한일 간의 협력 없이는 어떤 중요한 이슈도 해

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순구 차관보도 “(스티웰 차관보와)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도 대화 재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티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했고, 오후엔 카운터파트인 윤 차관보와 만난 뒤 강 장관을 예방했다.

스티웰 차관보는 오전 회동 때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외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약속 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연합뉴스

신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깨뜨리는 것으로 세계 자유 무역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본이 수출 제한에 관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협력 증진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포함한 3자 간 협력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며 “공공 방송용 자막 제작, LNG 공동 구매, 아

시아 슈퍼 그리드(Asia Super Grid) 설립과 같은 협력의 여지는 충분하고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1인 가구 85만원·2인 가구 145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 月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장려금 포함 1440만원 수령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청년 창업자에 대한 저리융자가 확대되고, 주택금융 우대금리 대상인 신혼부부의 인정범위가 혼인기간 7년으로 늘어났다. 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더해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협력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진업 창출 시도를 시범사업이나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300억 원 늘린다. 저리융자 대상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으로, 금리는 2.0%(한도 1억 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주거 차원에선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세부 내용

일자리	교육
- 신진업 자격제·등록제 신설	- 고졸 재직자 장학금 확대
- 청년 초기 창업자의 재정·경영 부담 완화	- 휴학 없이 진로탐색 설계·수행 과정 개설
-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 시범 도입	
주거	취약청년
- 공공청사 복합개발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전세대출 우대 금리	- 청년저축계좌 신설

※ 출처: 정부관계부처

창업시 최대 1억 2% 저리 융자 청년 채용 중소기업 4000만원 지원 신혼부부엔 전세대출 우대금리

오지에 저렴한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대표 후보지는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청년 직장인)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관사(신혼부부)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대상인 신혼부부 인정범위도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취약 청년과 신혼·다자녀부부에 대해선 전세임대의 우대금리(최고 0.5%포인트(P))를 신설한다.

교육 기회도 대폭 늘린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

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300만 원) 지원인원도 올해 2만 5500명에서 2022년 3만 명까지 늘린다.

아울러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85만 원, 2인 가구 145만 원)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탈빈곤을 유도하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모든 어려움이 한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韓 “국장급 회의하자”... 日 침묵

日, 韓 비판하며 “정책 대화 불가” 전략물자관리 韓 17위·日 36위

한국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막기 위해 일본에 국장급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국장급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일본에) 정식 서한으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 중단된 수출 통제 담당 국장급 협의회를 재개하자는 요구다. 산업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수렴이 끝나는 24일 전에 국장급 협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16일 주일 대사관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됐다.

한국은 이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일본에 국장급 협의를 요구해왔다.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2일 회동 대표단이 과장급으로 꾸러진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서한에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16일 발언을 반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대화조차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무성함에 우리 정부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포기하는 기류가 읽힌다. 산업

전략물자 무역관리 순위

순위	국기	국가	점수
1위	미국	미국	1019 점
2위	영국	영국	1018 점
3위	스웨덴	스웨덴	987 점
17위	한국	한국	897 점
36위	일본	일본	818 점
200위	북한	북한	-205 점

※ 출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 1300점 만점

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서한 발송은 레코드(기록) 쌓기”라며 대화 요구가 향후 통상 분쟁에 대비한 ‘명분용’임을 시사했다.

케치울(상항허가제도·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비전략물자 수출을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 등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본 주장에 박 실장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북 수출 통제만 해도 일본은 74개 품목만 감시하지만 한국의 감시 품목은 190개에 이른다. 이날 미국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이 발표한 전략물자관리 수준 평가에서도 한국은 200개국 중 17위에 올랐다. 일본은 19단계 아래인 36위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대화단절로 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보상 받으려면 영수증 쟁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248건으로, 이 중 여름철인 7~8월 피해구제 접수건은 1940건이었다. 전체 건수의 21.0%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위약수하물 파손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품목별 유의사항을 내놨다.

우선 숙박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이 다를 수 있어 가격과 조건을 비

교해 선택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에 대비해 예약 전 환급규정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특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각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보상 처리를 위해 사전에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 근로자로 인정

드라마 제작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중 감독, 프로듀서(PD) 등 팀장급을 제외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4월부터 지난달까지 KBS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원손잡이 아내’ 등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스태프 184명 중 137명(75%)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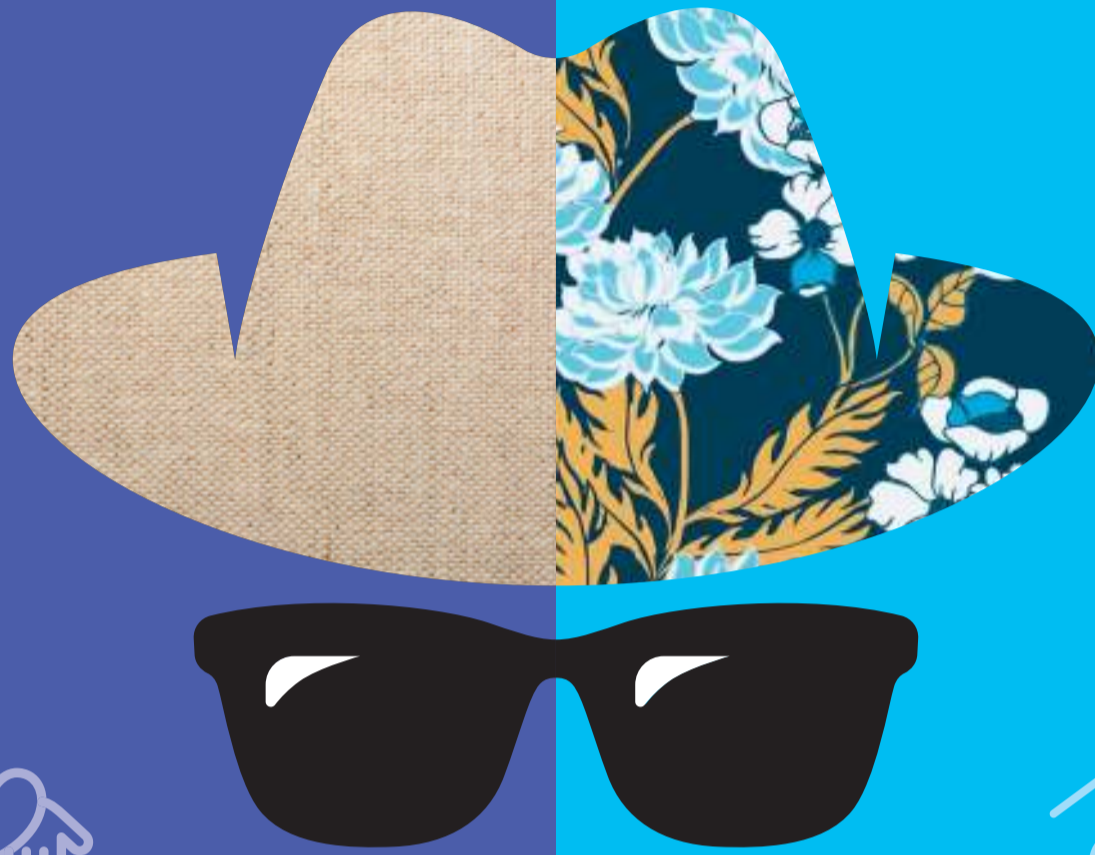
그동안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는 단단계 하도급 구조로 복잡한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고용부가 4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다수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명목상 프리랜서인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고용부는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내 종신보험의 바람직한 이중생활



젊었을 때는
내 가족을 위한 보장설계



은퇴 후에는
내 노후를 위한 자금설계

삼성생명 생애설계플러스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무배당)



젊었을 땐 사망보장,
은퇴 후엔 생애설계자금으로
활용가능 상품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한
투자형 상품



생애설계자금의
최저보증 기능
(단, 기본보험료에 의한 생애설계자금에 한하며,
해지환급금은 미보증)

*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 청약시 청약서 자필 서명란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 및 가입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문 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생애설계자금은 생애설계자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만큼 자동감액하고, 생애설계 자금 지급일에 계약자에게 생애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단,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음) * 생애설계자금의 최저보증은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등을 차감 후 계산한 예정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 지급해드립니다. 다만, 생애설계자금 개시 또는 생애설계자금 지급기간 종료시점 이전 중도해지시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지환급금 및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책임(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수익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되는 특약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관련이 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北과 거래한 적 없는데... 어디서 났을까?” ‘벤츠’ 탄 김정은에 난감한 다임러

‘밀수설’에獨 명차업체 난색
“중고차 거래 소관 아냐” 해명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 부실로 전락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억지 주장을 퍼면서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방탄 벤츠’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요 이벤트 시에는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타고 등장, 고가의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 벤츠를 생산·판매하는 독일 명차업체 다임러의 입장이 난처해졌음은 물론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노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C4ADS는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애용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한 결과를 보여줬다.

C4ADS에 따르면 대당 50만 달러(약 6억 원)가 넘는 방탄 벤츠 2대가 2018년 가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벤츠는 유럽 네덜란드에서 해상을 통해 41일 걸려 중국 다롄으로 옮겨지고, 거기에서 다시 일본 오사카와 한국 부산으로 우회해 최종 목적지인 러



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역됐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평양까지는 북한 제트기 3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김 위원장이 방탄 사양의 고가 리무진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먼가드’를 탄 모습이 처음으로 목격된 건 올해 1월 하순으로, C4ADS가 추적한 납차 시기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였다.

‘김정은 방탄 벤츠’ 논란에 가장 난감한 건 다임러다. 김 위원장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할 때마다 벤츠를 타고 나타나는데 통에 매번 구설에 오르고 있어서다. 영국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다. 작년 가을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면서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 등장했다.

다임러는 WSJ에 “(김정은의)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납품됐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15년 이상 북한과 거래 실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 및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포괄적 수출 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제3자 혹은 중고차 판매는 우리 소관 밖이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먼가드”를 납품할 때는 고객과 상의해 신중하게 인도 장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풀먼가드는 방탄 사양으로, 벤츠 모델 중에서도 최고가 라인이다. ‘마이바흐’도 16만 달러 이상의 고가 라인이지만, 김 위원장이 탄 마이바흐 S600 풀먼가드는 차체도 마이바흐보다 더 큰 데다 가격이 157만 달러(약 19억 원)가 넘어 범접이 어렵다. 한 나라의 정상이나 중동 석유재벌 등이 주요 고객이다. 사양도 독일 최고 탄도 방호 등급인 ‘VR9’을 충족, 가까운 거리에서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지뢰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해 ‘도로 위의 장갑차’로 불린다.

배수경 기자 sue6870@

“對中 추가관세 부과할 수도” 트럼프, 무역협상 또 ‘삐딱선’

WTO, 中 손 들어주자 발끈
무역전쟁 임시휴전 깰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터트리면서 불과 지난달 말에 맺었던 무역전쟁 휴전을 깰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자신이 원한다면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만나 대중국 관세 제4탄 등 무역전쟁을 임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련한 관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원한다면 3250억 달러(약 383조 원) 규모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거래(Deal)’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맺은 거래를 깨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오사카 담판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아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아직 농산물을 구매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은 (미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돼 있다”며 “사는지 두고보자”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주에도 트위터에 “중국은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을 사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곧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 합의 이후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15일 백악관 행사에서도 “그동안 시진핑을 ‘좋은 친구’라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고 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7년간의 미중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트럼프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언급한 배경으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WTO 상소기구 판정 직후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관세보복일까, 통화부양일까 中, 美 국채보유액 2년來 최저

중국이 세계 최대 미국 채권 보유국 지위를 일본에 내주게 생겼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가 계속 줄면서 그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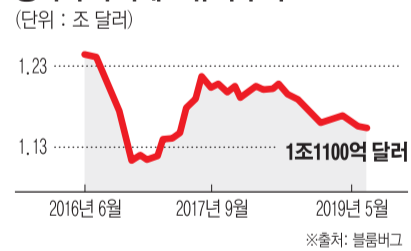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국제 자본수지 통계에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1조1100억 달러(약 1309조 원)로 전월보다 28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3개월 연속 줄었고, 보유 규모는 2017년 5월 이후 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1위 미 채권국이다. 하지만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불과 100억 달러로 좁혀졌다. 5월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은 전월보다 370억 달러 늘어난 1조1000억 달러로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중국과 대조됐다. 증가폭은 2013년 7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 중국의 미 국채 보유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5월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무역전쟁이 격화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국채를 매각했을 것으로 추정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추이



하고 있다. 중국이 대량으로 미 국채를 팔면 미국 장기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다만 5월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불안이 고조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미 국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많이 장기 금리를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전체 미 국채 보유액이 6조54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전 기록은 올해 3월의 6조4700억 달러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기보다는 자국 통화인 위안화 가치를 지키고자 달러화 매도·위안화 구매 개입을 계속하면서 그 재원으로 미 국채를 매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5월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약 2.9% 하락해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달러·위안 환율 7위안 선이 위태로웠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첫 여성 EU 집행위원장 됐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인준 투표에서 공식 선출이 확정되자 안도하고 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은 재직 의원(747명)의 절반이 넘는 383표를 얻어 차기 EU 집행위원장에 당선,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이 됐다. 폰데어라이엔은 11월 1일 장 클로드 융커 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다. 스트라스부르/AFP연합뉴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 G7 회의 테이블 오른다

IT공룡에 디지털 과세... 각국 통화완화 정책 등도 논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막이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다. 리브라 규제를 둘러싼 첫 논의의 장이 되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현 금융 시스템에 혁명을 몰고 올 것이

란 평가를 받았다.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페이스북은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급등락 방지 구조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ID로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 조작이 어렵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부정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리브라가 몰고 올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현행 금융 시스템 혼란,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취약, 범죄 악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제품 파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장도 리브라와 관련해 “기술 혁신에 안전성

과 건전성이 담보되면 지지하겠지만, 리브라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조직에 의한 돈세탁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각국 대표는 리브라 규제 외에 거대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과세’를 물리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 과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과세 기준은 기업 본사와 지사가 있는 국가만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배달, 인터넷 판매 등 물리적 거점이 없는 기업에 충분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김서영 기자 0jung2@

<KDB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대현 “대우건설 매각 계획 없다… 가치 제고가 우선”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 높이고 손실 나는 사업 과감히 처분 성과중심 조직문화 만들겠다”

“대우건설 매각 일정은 따로 잡아둔 게 없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1층 IR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방향은 펀더멘털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 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건설을 서둘러 매각하기보다는, 효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원배자들이 자연스럽게 물린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대우건설의) 잠재 매수자들이 원하는 내용과 형태로 기업을 만들어가면 원매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며 “결국 새 주인이 원하는 것은 펀더멘털 강화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 임직원한테도 ‘일단 스스로 강해지고 보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대우건설의 부족한 사업을 과감히 처분하고, 성과주의를 강화해 ‘패배주의’에 젖은 대우건설 임직원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건설의) 손실이나 프로젝트나 사업을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



KDB인베스트먼트 설립 일지

2019.1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외부자문사 선정
4	법인 설립
6	업무집행사원(GP) 등록
7	1호 PE 자산(대우건설) 이관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

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가 뭐냐 잘 따져봐야 한다. 관련 스터디를 해왔고, 대우건설 담당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대우건설 임직원의 마인드셋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고,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우그룹이 무너진 뒤 계속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기도 떨어지고, 조직문화가 배타적으로 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제도나 시스템을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본부 간 협력이나,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토대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사와 보상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사제도나 평가·보상제도를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보다 훨씬 더 시장답게, 더 역동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며 “김형 사장에게 사업본부별로 독립채산제와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는 임직원은 밀어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회사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에 이은 두 번째 자산 편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2호 자산 이관에 대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한 곳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이해당사자가 많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상 기업이 어딘지에 대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KEB하나銀, 카옥션과 ‘車 플랫폼’ 맞손

KEB하나은행은 카옥션과 ‘자동차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옥션은 600여 개의 매매상사를 경매 참여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경매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향후 ‘차량구매 → 차량이용 → 차량판매 → 차량 재구매’로 이어지는 손님 자동차 생활의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 서비스를 구축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장성 KEB하나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구입 및 매각을 희망하는 손님에게 금융 혜택은 물론 비금융 혜택까지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고객기반을 활용한 자동차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손님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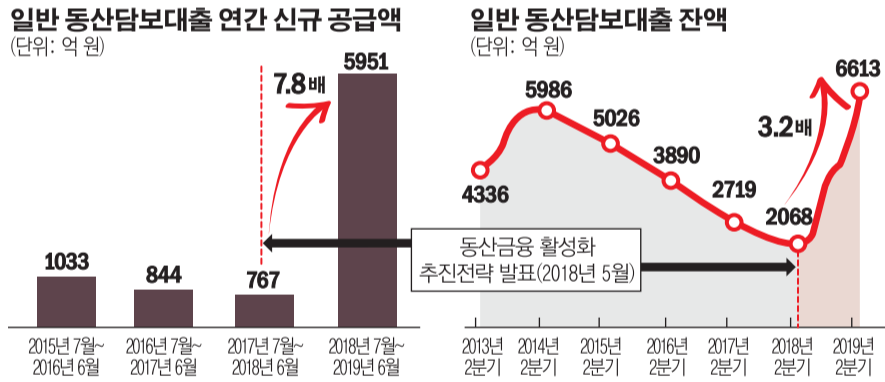
이장성(오른쪽) KEB하나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이 업무협약식 후 장영수 카옥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수 카옥션 대표는 “KEB하나은행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기존 중고차 거래방식에서 탈피한 신개념의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동차 관련 서비스의 혁신적인 진화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지난달 동산담보대출 1조 돌파

IP담보 제외 일반 동산담보 6613억... 1년새 3.2배 증가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 원을 돌파했다. IP(지식재산권) 담보를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6613억 원으로 1년 새 약 3.2배 증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1년간 은행권의 노력을 치켜세우면서도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동산담보(IP담보 제외)의 경우 6월 말까지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951억 원(IP제외)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가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6613억 원(IP제외)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IP담보의 경우 시중은행의 시장진입으로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시중은행 IP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793억 2000만 원으로 지난 3개월간 비중이 0.4%에서 19.6%로 늘었다.

시중은행들은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기존 대출 3억

원을 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 B에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금리(4.4%)와 한도(추가대출 5000만 원) 혜택을 제공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 비용이 과거 월 240만 원에서 현재는 월 9만 2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도입했다.

법무부는 8월 중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골자다. 하반기에는 신용정보원과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티레이다.

인공지능 티레이다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다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6%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출금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다, 티레이다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담보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팀 제9-62호(2019.02.28)

삼성, 미래 육성 결실...세계 첫 '3진법 반도체' 길 열었다

김경록 UNIST 교수 연구팀
2017년부터 삼성 지원받아
대면적 웨이퍼에 구현 성공
'0과 1' 디지털 패러다임 넘어
빠른 연산·절전·소형화 강점



3진법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대면적 실리콘 웨이퍼에 구현한 김경록 UNIST 교수 연구팀. 앞줄 왼쪽부터 김우석·최영은·정재원·박지호 연구원. 뒷줄 왼쪽부터 이규호·김성진·김경록·장지원 교수. 사진제공 삼성전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경록 교수 연구팀이 초절전 '3진법 금속-산화막-반도체(Ternary Metal-Oxide-Semiconductor)'를 세계 최초로 대면적 실리콘 웨이퍼에서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15일(현지시간) 세계적인 학술지 영국 '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에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연구를 2017년 9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 테마로 선정해 지원해왔다.

3진법 반도체는 초절전·고성능·소형화 등에 장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바이오칩, 로봇 등의 기술 발전에 큰 파급력이 기대된다.

반도체 업계는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대규모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줄여 집적도를 높여 왔다.

또 업계는 현재 2진법 기반의 반도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높일수록 증가하는 소비전력을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3진법 반도체'가 주목받았다.

김경록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3진법 반도체는 0, 1, 2 값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3진법 반도체는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

계산 속도가 빠르고 그에 따라 소비전력도 적다. 또 반도체 칩 소형화에도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숫자 128을 표현하려면 2진법으로는 8개의 비트(bit·2진법 단위)가 필요하지만 3진법으로는 5개의 트리트(trit·3진법 단위)만 있으면 저장할 수 있다.

현재 반도체 소자 크기 축소를 통해 단위면적당 집적도를 높여 급격히 증가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소자의 소형화로 인한 양자역학적 터널링 현상이 커져 누설 전류가 증가한다. 또 그로 인해 소비전력도 증가하는 문제가 크다.

김경록 교수 연구팀은 소비전력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누설 전류를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반도체 소자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상태를 구현하는 데 활용한다. 연구팀은 누설 전류의 양에 따라 정보를 3진법으로 처리하도록 구현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2진법 반도체 소자 공정 기술을 활용해 초절전 3진법 반도체 소자와 집적회로 기술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면적으로 제작돼 3진법 반도체의 상용화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2진법 시스템 위주의 반도체 공정에서 3진법 시스템으로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공정·소자·설계 전 분야에 걸쳐 미래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3진법 반도체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바이오칩, 로봇 등의 기술 발전에 있어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김경록 교수팀 연구 지원을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 팹(FAB)에서 미세공정으로 3진법 반도체 구현을 검증하고 있다. 한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국가 미래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532개 과제에 6826억 원을 집행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 셀토스, 금호타이어만 쓰는 이유 있었네

물량 몰아주는 대신 단가 낮춰
문제 시 쏘울 타이어 대체 가능

금호타이어가 기아자동차에 신형 SUV 셀토스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게 된 것을 놓고 업계가 '황금률'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내수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호타이어의 전략, 기아차의 원가절감 노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케이스라는 것이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6월 말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서 셀토스 OE(순정) 타이어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앞서 금호 측은 "신형SUV 셀토스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며 "컴포트 제품 가운데 최상급인 솔루스 TA시리즈를 전량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솔루스 TA시리즈는 저소음과 마모도, 주행성능 등을 끌어올린 대표 모델이다.

신차 셀토스는 사전 계약 8일 만에 3000대가 계약되는 등 폭발적인 초기 반응을 끌어낸 기아차의 전략 SUV다. 내수

기아차 타이어 비교

※단면폭(mm) / 편평비(%), 휠 사이즈(인치)

타이어	모델
셀토스	금호 205/60R 16
	금호 215/55R 17
	금호 235/45R 18
쏘울	—
	한국·넥센 215/55R 17
	한국 235/45R 18

에서만 월 2500대, 연간 최대 3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물량이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특정 타이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공급받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공급처의 재난과 화재, 파업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파업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부품 생산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차량 생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성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의 '피스톤 링'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곳이 2011년 파업에 돌입하자 국내 완성차

5사는 생산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번의 경우 기아차는 금호타이어의 공급이 중단된다 해도 대안이 있다. 같은 광주공장에서 생산 중인, 동일 사이즈인 '쏘울'용 타이어(한국 및 넥센타이어)를 대체 투입할 수 있다. 금호를 타이어 단일 공급처로 선정한 물량을 몰아주는 대신, 납품 단가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적잖은 물량을 확보한 금호타이어 역시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가동률 상승과 이미지 개선, 내수시장 회복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의 평균 가동률(2018년 기준 88.9%)을 10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줄이면서 넥센타이어에 빼앗긴 내수 2위부터 탈환하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미 국내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어섰고 정상화 작업이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ETV에 게재됐습니다



인천공항 매일 3차례 수문장 교대식 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지역에서 '인천공항 수문장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공항 수문장 교대식과 제식훈련, 부채춤 등 전통공연을 선보이며 공황을 찾은 여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지역에서는 '인천공항 수문장 교대식' 상설문화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차례 진행되며, 공연시간은 낮 12시·오후 1시 30분·3시이다. 사진은 조선시대 국왕 역을 맡은 배우 임호가 인천공항을 지키는 수문장 책임자에게 교지를 하사하는 퍼포먼스 모습. 사진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포브스 "LG V50, 가장 현실적 폴더블 옵션"

LG전자 V50 씽큐의 듀얼 스크린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폴더블 옵션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포브스는 삼성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 메이트X 등 5G 스마트폰 출시가 연기된 가운데 두 개의 스크린을 연결하는 LG V50 듀얼스�크린이 가장 현실적인 옵션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LG V50은 5G 스마트폰으로 스냅드래곤 855 칩을 탑재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이 돌출되지 않아 후면이 매끈하다. 듀얼 스크린은 플립케이스에 추가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형태로, 3개의 포고핀(Pogo Pin)

을 이용해 스마트폰 본체와 연결, 화면을 확장해 이용할 수 있다.

포브스는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 원본과 새로운 버전의 문서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화면에서 트위터를 할 수 있다"며 "게임을 할 때 듀얼 스크린을 게임 패드로 활용해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X 가격이 2000달러(약 235만 원)를 상회하지만 V50 가격은 그 절반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중 노조 파업 가결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가결됐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총 조합원 1만 296명 중 68.41%인 7043명이 투표했다"며 "이 중 86.98%에 해당하는 6126명이 파업에 찬성해 (파업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는 회사의 법외분할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1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5일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획득되기 때문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한화테크윈, 북미 CCTV 공급 확대

콜롬비아 은행 80곳 설치
내년까지 90곳 추가 계획
지난해 지역 매출 40% ↑

한화테크윈이 미국 감시카메라(CCT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커뮤니티 뱅크인 콜롬비아 은행에 멀티 센서 카메라 등 자사의 CCTV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 은행이 쿡 시큐리티(Cook security)그룹과 함께 자사의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한화테크윈의 카메라와 제너텍(Genetec)의 영상통합관리시스템(VMS:Video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카메라 공급을 시작한 한화테크윈은 지금까지 콜롬비아 은행 80여 곳에 1200대가량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총 90여 곳의 은행에 추가로 CCTV 카메라를 배치한다는 계획

이다. 한화테크윈이 콜롬비아 은행에 제공하는 제품은 멀티 센서 기능을 갖춘 와이즈넷 P시리즈 'PNM-9000VQ' 카메라와 돔 카메라인 와이즈넷 X시리즈 'XND-8020F' 등이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뛰어난 제품 안정성과 네트워크 압축 기술의 효율성(Wise stream II), 그리고 ATM 주변 일정 시간 이상 배회 시 별도의 알람 기능을 갖춘 특화된 비디오 분석기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콜롬비아 은행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화테크윈은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오랜 시간 잘 구축해온 선행 영업 기틀을 발판 삼아 매출 증가의 핵심 지역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작년 한 해 매출이 40% 가까이 성장한 북미시장에서는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올해에도 높은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항 시장인 남미 지역에서는 선행 영업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를 강화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CJ ENM (080-000-8000)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25분 CJ오쇼핑 방송

당신의 패션바이블, 옛지
www.CJmall.com

A+G

하현회 “하반기 CJ헬로 인수 매듭… 5G 1등 하겠다”

〈LG유플러스 부회장〉

취임 1주년 맞아 각오 다져… 통신시장 지각변동 예고

취임 1주년을 맞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하반기 고착화된 통신시장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CJ헬로 비전 인수를 매듭짓고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를 통해 5G 1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2분기 사내 성과 공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5G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 부회장은 2월 CJ헬로 인수를 전격 발표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하반기 CJ헬로 인수 시너지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5G에서 일등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하 부회장은 “CJ헬로 인수 결정을 통해 IPTV와 케이블TV, 양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디어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CJ헬로는 업계 1위답게 매우 우수한 임직원 역량과 조직문화를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회사와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케이블TV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핵심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

취임 이후 43차례 현장 경영

5G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

상용화 100일 점유율 29% 달성

4:3:3 점유율 구도 변화 조짐

하 부회장은 “인수 후 CJ헬로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승계와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도 기존 관계를 존중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CJ헬로 인수를 통해 콘텐츠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IPTV, 5G 등 핵심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로서 CJ헬로의 지역성과 다양성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하 부회장은 “지역 채널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며, 지역 채널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밀착 콘텐츠와, 지역민 제작 참여 기회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2분기 사내 성과 공유회에서 ‘5G 1등’ 의지를 밝히고 있다.

확대하는 한편, 지역에서의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며 “인수 후에도 IPTV와 케이블TV, 양대 플랫폼을 독자 운영하면서 CJ헬로의 방송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케이블TV 플랫폼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 심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우리 회사의 다양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하반기 CJ헬로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핵심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을 키워 미디어 플랫폼 사업은 물론 5G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하 부회장은 1월 미국 CES에서 구글과 VR 콘텐츠에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세계 최초 4K 360도 AR스튜디오 설립, 5G 기반 클라우드 VR게임을 최초로 선보였다. 핵심 콘텐츠 차별화를 기반으로 5G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장 제일주의 원칙도 강조했다. 하 부회장은 “영업 현장, 품질 현장, 안

전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밝히며 취임 3주 만에 현장 경영활동을 시작해 영업점, 고객센터, 기지국, R&D센터까지 43회의 출장 스케줄을 소화했다. 연휴와 해외 일정을 제외하면 평균 3~4일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셈이다.

상반기에 대한 평가도 언급했다. 하 부회장은 “뚝뚝 뭉쳐 쉴 새 없이 달려온 결과 5G 상용화 100일 5G 점유율 29%를 달성해 기존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며 “5G 성과는 전사가 하나가 되어 철저한 준비로 5G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결과이며, 결국 고객들이 LG유플러스의 서비스 경쟁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게임 체인저’로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다.

그 결과 5G 이용 고객들의 하루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LTE 고객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5:3:2 점유율 구도는 5G에서 4:3:3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번호 이동 시장 신규 가입자 점유율 역시 약 31% (MVNO 제외)를 차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국내 첫 소상공인 전문컨설팅 센터 생긴다

서울 구로구청 맞은편… 내달부터 ‘소상공인 점프업허브’ 입주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협상 등 맞춤형 교육 ‘원스톱 성장 패키지’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전문 컨설팅 교육기관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획·운영하는 소상공인 전문 교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허브’가 8월 초 입주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점프업허브는 기존에 없던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를 전격 공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는 입주사를 위한 맞춤 교육지원 사업이다. 점프업허브에 입주하면 가장 먼저, 전문가의 1대1 경영클리닉을 통해 경영전략, 회계진단, 유통·마케팅 3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선택 지원받는다.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문제 해결 및 성과 창출

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은 매출 점프업 과정과 역량 점프업 과정에 각각 8주 강의로 제공된다. 각 과정은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협상, 상품기획 등 8개 과목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실무 밀착형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매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은 ‘오픈마켓 전용관 개설 및 입점 지원’과 ‘O2O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등으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는데, 네이비가 출연한 순수 민간 공익재단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지원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의 연계 지원이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모색 등 기존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접해 보지 못한 사



업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희망재단의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는 입주사에 우선 지원되며, 지원 사업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도 참여 가능하다.

‘소상공인점프업허브’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소상공인 전문 교육 공간으로 구로구청 맞은편에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5950㎡(약 1800평) 규모로 구축됐다. 입주사 전용공간 외에 각종 회의실, 첨단교육장, 제품촬영실, 동영상 스튜디오 등 입주사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상반기 12조1000억 보증 지원 기보, 제2 벤처붐 확산 첨병 역할

기술보증기금이 올 상반기 12조 원이 넘는 중기 보증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17일 부산 문현동 본사에서 임직원 및 지점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제로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지원성과 점검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기보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운모(사진) 기보 이사장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바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며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고객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핵심 정책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기보는 올 상반기에 기술창업,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등 핵심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



급해 기술·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Tech-Safe 시스템을 오픈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000억 원 규모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을 시행해 제2벤처붐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남방정책 안착을 위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과 ‘메이커 스페이스’ 보증, R&D 사업화 지원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핵심 역량인 기술평가사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해 기술평가정보의 대외 개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특허 공제사업 업무도 개시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SK인포섹 ‘2019 동반성장 데이’ 개최

융합보안 서비스 ‘시큐디움 아이오티’ 등 신사업 소개

SK인포섹은 16일 ‘2019 동반성장 데이(Day)’를 개최했다.

4회째 열린 ‘동반성장 데이’는 ‘새로운 가족·사업·터전’을 파트너사에 차례로 소개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올해 SK인포섹은 SK ICT 패밀리의 보안 관계사로 자리 잡았으며, 융합보안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사 사무실과 관계센터를 판교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이용한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한 행사에선 SK인포섹의 새로운 사업이 소개됐다. SK인포섹은 융합보안 서비스 ‘시큐디움 아이오티(Secudium IoT)’와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 서비스 ‘사이버가드 프로페셔널’ 사업에서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 ADT캡스 등 SK ICT 패밀리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확대 방안도 설명했다.

융합보안 서비스와 중소·중견기업(SMB)형 보안서비스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 회사도 다수 참석했다. 문서보안 전문기업 소프트캡스는 4년 연속 동반성장 데이에 참석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인 소프트캡스는 지난해 매출액 170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SK인포섹은 파트너 회사들에 △간접 금융지원 △기술자료 임차제도 △사업정보 사전공유 및 경영·기술 교육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동반성장 펀드 △CEO 포럼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창업진흥원, 히브리대와 ‘기업가정신 교육’ MOU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선진 창업 생태계와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진흥원-히브리대학교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MOU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에서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히브리대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및 양국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창업진흥원은 3월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와 MOU를 체결, 올해 20명의 대학생을 테크니온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은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이날 ‘한국-이스라엘 총장 국제포럼’에서 진행됐다. 포럼에는 이스라엘의 리블린 대통령과 고등교육위원회 예산위원장, 주요 대학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청년들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후츠파 정신을 배우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주문 건수 8배 '쑥'... '편의점 배달' 잘나가네

재고 연동 시스템 갖춘 CU
업계 첫 론칭 성공적 안착
GS25·미니스톱도 테스트
조각 치킨 배달 확대하며
치킨 전문점 반발 과제로



사진제공 BGF리테일

편의점 CU(씨유)가 맨 먼저 뛰어든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편의점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요기요' 및 '우버이즈'에서 테스트 중인 GS25는 연말까지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 미니스톱은 이달 중으로 4개 매장을 통해 시범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의 이 같은 행보는 배달 서비스가 '출점 절벽'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편의점 업체들이 치킨 판매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는 치킨 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개월 사이 8배 성장... 배달서비스에 '군침' = 17일 편의점 1위 업체 CU에 따르면 배달 서비스 도입 초기인 4월 말에 비해 6월 서비스 건수가 약 8배 증가했다. CU는 '요기요'와 3월 시범 서비스에 이어 4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

'요기요'에 입점된 CU 가맹점은 1000여 곳가량이다. 인기 상품은 안주류로, 냉장 즉석식과 간편식, 컵라면, 가공유 순이다.

'요기요'와 '우버이즈'에 각 4개점씩 총 8곳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GS25도 배달 서비스 인기가 높다. GS25의 인기 상품은 도시락과 김밥, 주먹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 식품이다. GS25는 2016년부터 배달 앱 '핑퐁'을 통해 대신 장을 봐주는 수준의 배달 서비스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해왔으나 주문 건수가 월 1000건가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1인분 주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끼니 대용으로 편의점 프레스푸드들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며 "이르면 연내 정식 서비스

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발 업체도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니스톱은 '요기요'와 '바로고' 등과 함께 7월 중에 △사당역점 △봉천역점 △여의IFC점 △강남센터점 등 4개 직영점에서 배달 서비스 시범 테스트에 들어간다. 배달 품목은 냉장 및 냉동 식품과 공산품 등이며, 매출 효과 품목인 치킨도 포함됐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역시 배달 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재고 연동 시스템' 도입... 치킨 집 반발은 부담 =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일찌감치 출점 절벽에 따른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편의점 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편의점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데다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이 이용하겠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여기에 재고 연동 시스템 개발 비용도 업계에는 부담이 됐다.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단순히 배달 전문 업체의 앱에 입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문 가능 상품과 수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CU는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POS 단말기를 통해 매장의 상품 입·출고가 자동 입력되는 재고 연동 시스템을 갖췄다.

치킨 전문점의 반발도 걸림돌 중 하나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치킨 가격을 인상한 데다, 배달비까지 따로 받기 시

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편의점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편의점 치킨 1마리당 가격은 대략 1만 원 내외인 반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는 약 2만 원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부위별 조각으로 구매할 경우 2000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편의점이 치킨 배달까지 나설 경우 사업성은 확보된다. 문제는 자영업자끼리 상권 침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상위 5곳 중 가장 매출이 작은 미니스톱이 배달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인 점도 치킨 판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석조리식품에 강점이 있는 미니스톱은 편의점 치킨의 대명사로 불린다. 특히 미니스톱은 이번 배달 서비스 테스트에 치킨을 포함시켰다. CU는 이미 '요기요'를 통해 조각 치킨을 배달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들이 치킨 판매에 공을 들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시범 판매에 이어 이달부터 치킨 판매를 시작했고, 이마트24도 일부 직영점에서 치킨 판매를 테스트하면서 국내 주요 5대 브랜드 모두 치킨을 팔게 됐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치킨 업계의 반발 문제만 풀 수 있다면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추석선물 준비하세요

지난해보다 명절 11일 앞당겨지며
홈플러스·롯데마트 이달부터 예약

대형마트에 벌써 추석명절이 찾아왔다.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달부터 추석선물 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첫 포문을 연 것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석이 지난해 대비 11일 빨라짐에 따라 행사 역시 15일 미리 준비했다. 행사기간은 총 46일로 이 역시 지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보다 4일 늘었다.

홈플러스는 총 400여 종의 상품을 준비했으며,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하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1만~2만 원대 선물세트는 △동원 스페셜 5호(2만3660원) △CJ스팸 복합 1호(2만3450원) 등 각종 통조림 햄과 참치 캔, 카놀라유, 김, 버섯 등 실속형 상품으로 구성했다. 3만~4만 원대 상품은 사과와 배 등의 과일 선물세트와 냉동 소고기, 꽃감 및 각종 견과, 홍삼 등이 주를 이룬다.

△미국산 LA식 꽃갈비 냉동세트(8만9600원) △농협안심한우 꼬리한벌 냉동세트(6만7500원) △농협안심한우정육갈비 혼합 냉동세트(12만7200원)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도 25일부터 9월 2일까지 40일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사전예약은 한우와 과일 등 신선식품 113종과 통조림, 식용유 등 가공식품 136종, 생활용품 67종 등 총 316개 품목이 대상이다. 롯데마트는 사전예약 기간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사전예약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설의 경우 사전예약 기간 매출이 전체 선물세트 매출의 40%를 넘어섰다. 사전예약 기간에는 오픈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와 신한 등 9대 카드 결제 시에도 최대 40% 할인해준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이른 추석 준비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이마트는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끝나는 8월 중에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패션 본고장 발 넓히는 'K패션'

한섬·삼성물산 등 中·동남아 넘어 유럽·북미 국가 진출

K팝·K뷰티·K푸드에 이어 K패션이 해외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날개를 펴고 있다. 기존에는 중국, 동남아를 위주로 한 진출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패션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며 K패션의 세계화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17일 중국 유통그룹인 백련그룹과 손잡고 여성 캐주얼 브랜드 SJSJ의 중국 진출을 알렸다. 한섬은 유럽에 먼저 진출한 뒤 중국 진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섬은 지난해 시스템, 오브제, 오즈 세컨, 더캐시미어, SJYP 등 8개 브랜드 제품을 미국, 대만, 홍콩 등 10여 개국에 수출했다. 지난해 수출 규모만 150억 원에 이른다. 이번 SJSJ의 중국 진출은 계약 기간이 5년이고, 예상 수출 금액은 350억 원이다.

국내 패션 기업 가운데 가장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곳은 이랜드다. 이랜드는 1994년 중국에 공장 형태로 처음 진출한 뒤 1996년 브랜드를 론칭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시장에서 활발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스튜디오토티 이 역시 4월 베이징과 시안에 있는 SKP백화점에 단독 매장을 열고 중국 진출을 알렸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톰보이에 앞서 2011년 중국 항저우에 보브 첫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같은 해 4개 매장을 추가로 열었고, 현재 중국 내 보브 매장은 44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LF의 헤지스는 2007년 말 중국의 3대 신사복 보유 업체인 '빠오시냐오 그룹'



상하이 제일팔백백화점에 오픈한 한섬 여성 캐주얼 브랜드 SJSJ 중국 1호점 전경.

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매년 매출 신장을 기록해 현재 300여 개의 매장을 확보했다.

이처럼 중국과 동남아 위주로 사업을 해오던 K패션이 최근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섬의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과 시스템 옴르는 올해 1월 가을-겨울 파리 패션 위크에 참가한 데 이어 2020년 봄-여름 파리 패션위크에 동반 참가했다. 한섬은 1월 파리 패션위크 행사를 통해 전 세계 11개국 20개 패션 유통 업체와 도매 계약을 맺었는데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일본에 그쳤고, 나머지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러시아 등 유럽과 북미 국가였다.

삼성물산의 패션 브랜드 준지는 2007년부터 파리 컬렉션에 참여했고 올해도 2020년 봄-여름 시즌 컬렉션을 파리에서 진행했다. 준지는 현재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홍콩 등 30여 개국, 100여 개 매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측 관계자는 "준지의 해외 수출은 6월 말 기준 전년보다 40% 신장했다"고 말했다.

백미션 기자 only@



바비큐 파티 즐기세요

17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 축산 코너에서 모델들이 바비큐(BBQ)용 토마호크 스테이크, BBQ 돼지고기 모듬 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바비큐 파티 행사를 통해 각종 바비큐용 고기를 할인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롯데월드 30주년 '매직스토리북' 발간

"외국 관광객들에게 언제까지나 고공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즐길거리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지 않겠습니까?"

신격호 명예회장은 1983년 초반 서울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롯데 주요 간부들을 앞에 두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에 대규모 타운을 만들면 어떨까. 놀이공원을 중심으로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서 거대한 롯데타운 프로젝트가 서막을 알렸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업보국 이념이 발현된 국내 최초의 실내 테마파크 롯데월드 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롯데월드는 7월 창립 30주년 기념 사사(社史) '매직스토리북'을 발간했다. 히스토리 북인 '매지컬 로드', 브랜드 스토리 북인 '매지컬 드

림', 팝업북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2권의 사사는 판매용이 아니며, 팝업북만 롯데월드 기프트숍에서 6만 원(사전예약 시 3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는 "'여가'라는 표현조차 사치였던 1980년대에 '국내 최초의 실내 테마파크를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도전이고 모험이었다"고 말한다

롯데 전 계열사 중 가장 많은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롯데월드는 최고,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30주년 사사에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월드 설립 추진 회의를 주재하는가 하면,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해외 관광레저시설을 직접 조사하는 옛 사진이 담겨 있다. 물막이 공사가 한창인 매직아일랜드 공사 현



롯데월드 창립 30주년 기념 사사(社史) '매직스토리북' 팝업북. 사진제공 롯데월드

장, 1989년 롯데월드 사무식, 개관 당시 롯데월드 가이드맵 등이 두루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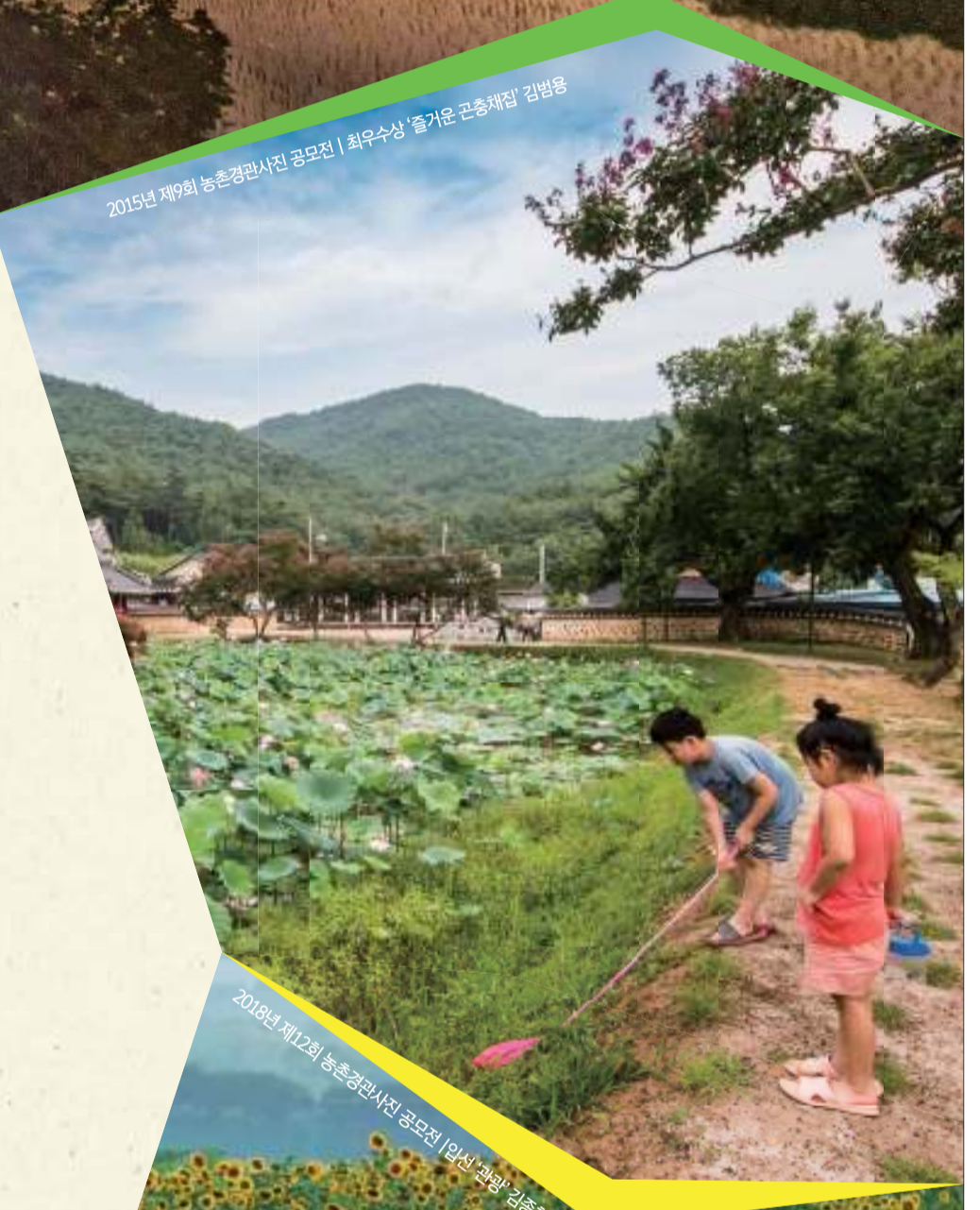
신동빈 롯데 회장은 사사 기념사를 통해 "롯데월드는 우리나라에 없던 선진 테마파크 문화를 창조했다"며 "롯데월드 매직스토리북은 과거 30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2018년 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 입선 '별이 빛나는 밤' 정지원



2015년 제9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 최우수상 '즐거운 곤충채집' 김범용



2018년 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 입선 '관망' 김종철



올 여름휴가는 우리 농촌에서
뉴트로 감성여행

별이 쏟아지는 추억의 여름밤
한 걸음 한 걸음 낭만적 꽃길
자연까지 함께 즐기는 논부 카페

우리 농촌만큼 전통을 새롭고 멋지게
즐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뉴트로 감성 가득한
우리 농촌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전국 팜스테이 마을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2018년 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입선 '탐스런 포도 한입에 쏙' 김대웅



오늘의 생활미식
**까도까도
매력양파**

흙 속의 진주 양파로
평생 건강하게!

전례 없는 회사채 흥행, 왜?

저금리에 만기도래 CP, 회사채로 대체하려는 수요 늘어
국내 설정 29개 펀드 최근 6개월간 평균 수익률 1.68%
전문가 “기준금리 인하 단행되면 발행규모 축소될 것”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회사채 발행량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하반기부터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총 52건의 회사채가 발행됐다. 발행금액은 이날 기준 3조9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3785억 원, 30건)과 비교하면 금액으로 67.34% 급증한 수치다.
기업별로는 최근 일주일간 포스코

(5000억 원), 호텔롯데(500억 원), 현대로템(2000억 원), 롯데지주(5000억 원), 현대오일뱅크(3000억 원), LG유플러스(9900억 원), 한화시스템(12000억 원), 포스코인터내셔널(2000억 원) 등이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했다.
전문가들은 회사채의 흥행 원인으로 저금리 심화 및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을 지목한다. 조달 금리가 비교적 저렴하고, CP(기업어음)보다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CP를 회사채로 대체해 조달하려는

회사채펀드 수익률 현황 (7월 17일 기준)

펀드명	설정액	6개월
KBKBSTAR중기우량회사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800.00억 원	2.11%
한국투자만기투자형증권투자신탁 5(채권)(C-R)	588.77억 원	1.90%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w	681.39억 원	1.85%
이스트스프링코리아밸류만기투자형증권투자신탁(채권)클래스C-P(퇴직연금)	650.00억 원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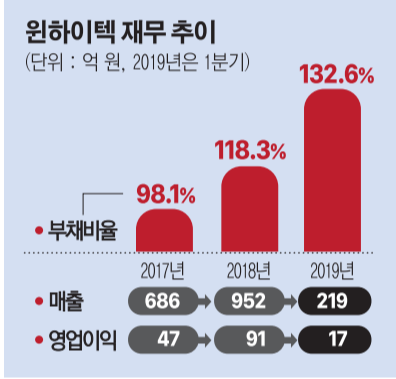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회사채가 투자나 운영 자금 조달, 만기도래 회사채의 차환 등 목적으로 발행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휴가철인 7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회사채 발행이 많지 않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많다”며 “저금리 심화 및 장단기금리 역전 상황에서

서 조달 비용을 경감할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곳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흥행을 이어가면서 회사채 펀드 역시 코스피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설정된 29개 회사채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68%로, 같은 기간 코스피(-2.48%)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종목별로는 KBSTAR중기우량회사채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 2.1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투자만기투자형증권투자신탁(1.90%),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1.85%), 이스트스프링코리아밸류만기투자형증권투자신탁(1.4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회사채 흥행이 잠잠해질 것이라 전망이 많다.
김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지면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완화되고, CP나 은행차입 대비 회사채 매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가 7~8월 중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례적인 회사채 발행 증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우리은행서 빌린 117억, 만기 1년 이내로 줄어들며 원하이텍, 단기차입금 349억으로 ‘경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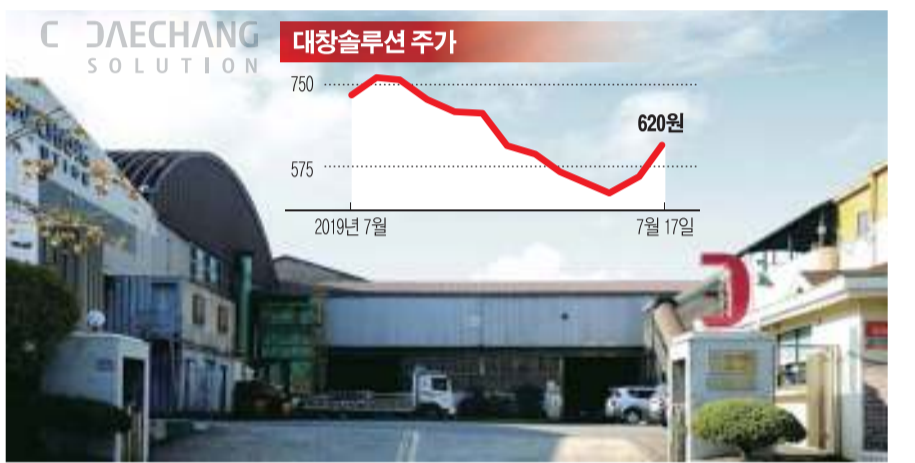
스몰캡 재무분석
실적 성장세지만 상황 역부족
추가 담보 대출 불가피할 듯



코스닥 상장사 원하이텍의 유동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줄어들면서 100억 원 을 웃도는 빚이 연내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된 탓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하이텍의 부채비율이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2016년 20%대에 불과했지만 2017년 98.1%, 2018년 118.3%, 올해 1분기는 132.6%로 늘어났다.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를 비롯해 타 법인과 부동산 인수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차입과 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영향이다. 특히 2017년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332억 원에 달했다. 그해 전환사채(CB, 1회차) 70억 원을 비롯해 차입금이 371억 원 늘어난 반면 줄어든 차입

금은 125억 원에 불과했다. 2016년 11월 서울시 도봉구 소재 토지와 건물 지분 40%를 184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부 차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6억 원 플러스를 기록해 총차입 규모가 늘었다. 작년에는 상환한 빚이 101억 원이었지만 2회차 CB를 50억 원 규모로 발행한 것을 비롯해 193억 원의 차입금이 증가했다. 원하이텍은 지난해 계열사 원글라스 인수를 위해 2회차 CB를 찍었다. 올해 1분기에는 갚은 빚이 48억 원으로 신규 차입금보다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든 빚은 6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올 들어 단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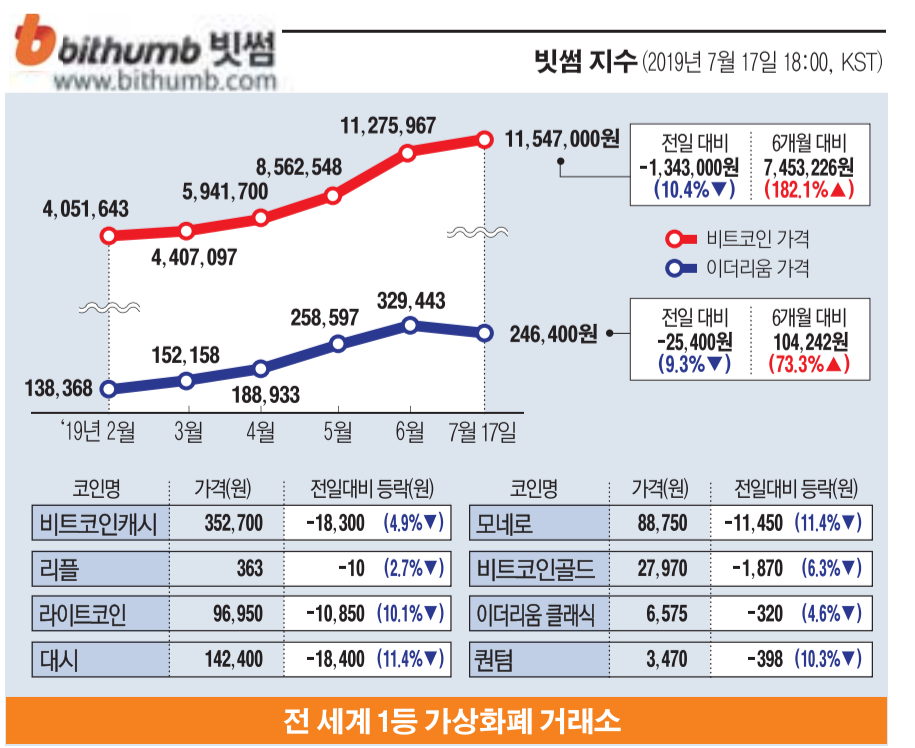
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단기차입금은 255억 원이었지만 1분기에는 349억 원으로 늘어났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7억 원의 차입금 만기가 1년 이내로 줄어들면서 단기차입금으로 재분류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 중 단기차입금 비율은 지난해 37.6%에서 올 1분기에 45.2%로 증가했다. 원하이텍의 실적이 성장세에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지만 차입금을 상환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만큼 차환이나 추가 담보 대출이 필요해 보인다.
원하이텍의 부채 성격이 악화되면서 현금흐름 등급도 낮아지고 있다. 작년 기준 현금흐름 등급은 ‘CF5’로 위험군에 속했다. 2016년에는 CF4(열위), 2017년은 CF3(보통)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 255억 원 규모의 안성 물류센터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이 일부만 들어온 상황에서 개발사업과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연내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대창솔루션, 천연가스 설비 ‘日 경제보복’ 수혜株로 주목

‘LNG 저장탱크’ 기술 확보
가스공, 국산화 맨 사업 확장
대창솔루션이 일본의 천연가스 핵심 설비 관련 경제 보복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탱크로리는 대부분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창솔루션은 자회사(지분율 98.70%) 크리오스를 통해 LNG 저장탱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설비 부품 관련 일본 경제 보복에 대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기준으로 크리오스는 최근 3년간(2018년 기준) 국내 LNG 저장탱크의 83%를 공급했다.
LNG 저장탱크는 LNG 위성기지, LNG 충전소, 일반 산업체의 LNG 저장시설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공급된다. 서해도 시가스, 경남에너지 등 국내 주요 도시가

스 공급업체의 LNG 공급시설에서도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대창솔루션은 크리오스와 LNG 저장탱크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LNG 플랜트, LNG 선박 등에 납품을 목표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장동향’ 보고서(코트라-산업은행발간)는 2025년 세계 신조 발주 선박 시장의 60.3%를 LNG 연료추진선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계 대형 LNG 연료추진선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건조될 경우 시장 규모가 2017년 3조 원에서 2020년 12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조선업체 차원의 국산화 기조가 유지되면 대창솔루션 등 LNG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사업 확장 속도도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고종민 기자 kjm@
오전 10시에 제공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됐습니다



엔지켐생명 ‘세계적 신약개발 권위자’ 토사구팽 논란

신약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美 FDA 2상 시험 승인 직후 해고
법원 “근무 태도 불량, 합리적 해고 사유 안돼... 임금 지급해야”

엔지켐생명과학(이하 엔지켐생명)이 ‘세계적 신약개발 권위자’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영입한 인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고 시점이 신약인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의 미국 FDA 임상 2상 시험 승인 직후여서 ‘토사구팽’이란 비판도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세호 전 엔지켐생명 부사장은 최근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정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총괄 지사장 및 미국 지부장으로 근무했다.
엔지켐생명은 정 전 부사장 영입 당시 “신약후보물질탐색(DMPK)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항암 치료에 효과적인 녹용 유래 단일성분 신약후보물질 ‘EC-

18(PLAG)’을 글로벌 신약 허가로 받기 위한 개발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톡옵션 3만 주도 부여했다.
실제 신약개발은 정 전 부사장 영입 후 순조롭게 진행됐다. 앞서 탈락했던 범부처 사업단 신약개발 연구비 신청에 성공해 26억 원의 연구비를 유치했다. 또 2015년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의 미국 FDA 임상 1상을, 2016년 7월엔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이때 승인된 임상 2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엔지켐생명은 한 달 뒤인 8월 정 전 부사장을 돌연 해고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해고 이유는 △비싼 비행기표를 이용했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다소 황당하다. 부여했던 스톡옵션도 경험과 역량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다.
박기명 기자 pgy@

반면 정 전 부사장은 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안을 보면 △비행기표는 정 전 부사장 개인 카드로 결제했으며 △특히 전문번호 사로부터 내용을 전달받는 즉시 보고했고 △미국 법인의 처음 주소가 자택이라 출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미국 지사 직원은 정 전 부사장 혼자 회사에 출근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번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는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톡 옵션 부분도 계약에 따라 3만 주 중 2만 주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신약개발 연구비 신청 성공과 신약 개발 과정 등에 정 전 부사장의 상당한 기여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기명 기자 pgy@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국세청, 유흥업소·상조업체·대부업자 등 상대 고강도 진행

장례비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 유도
술값 계좌로 받아 수입 신고 누락
검찰과 협업 영장 발부받아 조사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장례·상조 업체, 고액 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와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명의 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법적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T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후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대표적 상권에서 호황인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자 28명, 기업형 사채업자 및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등 86명, 불법담배 제조업자 21명, 보람상조 등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총 163명이다.

일례로 유흥업소 A는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 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

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자 B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 대여한 뒤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고액학원 C의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 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고, 상조업체 D는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검찰총장〉 '윤석열 시대' 맞은 검찰... 물갈이 폭은?

선배 기수 검사장급 잇단 사의
尹, 조직안정 위해 설득 나설듯
서울지검장 인사 이목 집중...
이성운·조남관·문찬석 등 거론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국장과 함께 거론되는 후보군은 이성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7·23기)과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54·24기),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58·24기), 여환섭 청주지검장(51·24기) 등이다.
윤 총장이 임명되면서 19~23기 검사장급들의 출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백을 메울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는 윤 차기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25일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8일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윤 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를 두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현재 봉욱(19기) 대검 차장검사,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박정식(20기) 서울고검장, 이금로(20기) 수원고검장,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55·21기) 부산지검장이 물러났다.

관례대로라면 윤 총장의 임기 시작 이후 30명의 검사장급 인사가 한꺼번에 옷을 벗어야 한다. 다만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윤 총장이 선배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량 이탈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효진 기자 js62@

범죄예방 디자인 입은 '금호동 빌라촌'

재개발 후보로 주거 노후화 심해져
말하는 CCTV·안전펜스 등 도입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유보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마을 브랜드 개발 및 새로운 주소 안내사인 부착 등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디자인을 입혀 환경을 개선하고,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은 올해 성동구 금호동에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서울시 내 총 60곳으로 늘었다.

이번 성동구 금호동 사례의 경우 구릉지에 형성된 구시가지로 재개발이 유보된 비슷한 유형의 지역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의 주요 내용은 △지대가 높은 지형성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안내사인 시스템 △마을 입구 사인 △에어켓 사인 △안심유도 반사판 △안전펜스 △안심게이트 △안심 바추미(조명 핸드레일, 동작감지) △안심 표지병 △안심 비상벨 △우리동네 말하는 CCTV 등이다.

특히 새로운 주소 표시체계인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Skyline Wayfinding)'을 도입했다.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은 지대가 높고, 단차가 많은 지형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 상단에 멀리서도 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크게 표기하는 사인 시스템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기숙사 등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허용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서울시가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18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는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했다.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대상 시

설에 포함되면서 전략산업 유치, 청년스타트업·소공인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를 확충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이 부족해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통장 필요 없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현대건설은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경찰서 바로 옆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오피스텔과 상가, 섹션오피스를 이달 분양한다. 과천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짜리 2개 동으로 이뤄졌다. 오피스텔과 섹션오피스는 각각 별개의 동으로 조성해 독립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오피스텔은 319실로 모두 주거용이다. 전용면적 69㎡ 115실과 84㎡ 204실로 이뤄졌

다. 전타입 2.7m의 높은 천장고로 설계돼 일반 아파트보다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교통은 물론 다양한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과천의 중심지다. 걸어서 4분 거리(약 200m)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정사역이 있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과천대로와 과천 IC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 과천시청과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이마트(과천점)와 상업지역 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



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과천지역 거주자에게 20%가 우선 배정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마련된다. 개관 전까지 과천시 중앙로 일대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9월 입주 예정이다.

공원에 둘러싸인 1000가구 대단지

GS건설 광주역 자연&자이

GS건설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이달 중 경기 광주시 역동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블록에서 '광주역 자연&자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태영건설·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은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아파트다. 총 1031가구의 대단지로 전체 가구가 주택 수요자에게 선호도 높은 중소형(전용 74㎡ 170가구, 84㎡

A타입 702가구, 84㎡B타입 74가구, 84㎡C타입 85가구)으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판상형으로 지어진다.

광주역 자연&자이는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부에는 경안천의 풍경을 담은 생태수변공원과 엘리시안 가든이, 수변공원 옆으로는 티하우스를 비롯한 조경시설이 갖춰진다. 게스트하우스·키즈카페·피트니스센터·사우나·스크린골프연습장·맘스스테이션·어린이집·독서실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어린이수목원·자이팜·다이닝가든 등의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 교통망도 잘 갖췄다. 2016년 개통한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할 경우 판교역까지 3정거장, 강남역까지 7정거장만에 닿을 수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강남권 등 주요 업무지역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이다. 판교·분당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산업부지에 마련된다.

65층 초고층 청량리 새 랜드마크로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 요지로 떠오른 청량리역 일대에서 랜드마크 단지가 선보인다. 1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이다.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에 재개발하는 이곳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 호텔 등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짜리 4개 동에 총 1425가구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26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84㎡ 1163가구

△102㎡ 90가구 △169~177㎡(펜트하우스) 10가구 등이다. 분양 물량의 88%가량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 구성됐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청량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분당선·경원선·경춘선·경의중앙선 등 10개 노선이 지나는 국내 최대 환승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분당선 연장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향후 GTX-B·C노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청량리역에는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시네마 등이 들어서 있다. 청량리시장·경동시장·성동구립도서관·동대문구청·성심병원 등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스트리트몰 및 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600만 원 수준이다.

고강도 규제에 믿을 건 '똥똥한 한 채' 뿐

건설사 '똥 곳' 중심 하반기 분양 시동

올해 들어서도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통제,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분양시장은 한껏 위축된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수도권과 이른바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광역시는 물론이고 입지와 미래가치가 괜찮은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에는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8대 1로 집계됐는데, 이를 사·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경쟁률(1순위 청약 기준)이 74.52대 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가 47.66대 1, 세종시가 38.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16.75대 1, 경기도는 15.25대 1로 평균을 웃돌았다. 즉 '똥똥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똥 곳은 된다"는 공식이 아직까지 유효했던 셈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똥 곳'을 중심으로 분양에 적극 나설 움직임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인근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공급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실수요자들로서는 내 집 장만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비 규제지역이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도 괜찮은 곳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온석근린공원 조망... 잔금 2년 유예 혜택도

한화건설 서산 동문 꿈에그린

한화건설은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들어선 '서산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가 분양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3층짜리 8개 동에 471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3.3㎡당 600만 원대부터다. 잔금 2년간 유예(30%) 등 파격적인 조건도 눈길을 끈다.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서산시 동문동은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서산지역은 내년까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10만여 명이 넘는 고용인구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구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앞에는 여의도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온석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교통 및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서산 도심권과는 약 5분 거리에 있다. 당진·태안·대산·홍성 등 인근 지역으로 진·출입하기도 쉽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이동도 편리하다. 서산시청도 가깝고 부춘



산체육공원과 음음산공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서산시 명문학교인 서령중·고교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동문초·서동초·서산시립도서관·청소년수련관 등도 가까이 있다. 서산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는 서산 최초 '스쿨버스 기증'을 통한 안전한 자녀 통학 시스템도 도입했다.

단지 중앙에는 하늘광장을 배치했다. 어린이집·도서관·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공용 공간도 갖췄다.

분양사무실은 서산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마련돼 있다.

초·중·고 개교 예정... 호수공원 인근 용지

LH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8월에 A59블록을 공급한다. 면적은 9만 1915㎡로, 최고 20층짜리 1103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용적률은 140% 이하,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내년 9월 이후다.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전산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같은날 오후 4시, 5시에 순서대로 진행된다. LH는 9월에 A61블록을, 10월에 A60블록을 각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는 동탄일반산업단지과 통합시 약 35㎢ 면적으로 분당신도시의 1.8배 규모다. 생활·자연·문화·레저·비즈니스를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족 도시다.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도 예정돼 있다. 동탄역 SRT 및 GTX(예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이 갖춰지면 서울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도 개교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대로를 거치지 않고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동탄호수 테마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녹지도 조성돼 있다.

콘서트홀과 전시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문화복합 용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수변상업시설과 문화복합시설, 주민편의시설까지 생활인프라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초·중·고 도보 5분...대입 특별전형 지역

대림산업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대림산업은 경기 김포시 마송지구 B-6 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아파트를 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짜리 7개 동, 574가구로 이뤄졌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6㎡ 48가구 △74㎡ 65가구 △84㎡ 461가구다. 실수요자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이뤄진 게 특징이다.

대림산업은 최근 개발한 e편한세상의 신규 주거 플랫폼 'C2 HOUSE'를 김포지역 최초로 이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C2 HOUSE는 고객 생활 패턴 분석을 통해 인테리어 스타일, 구조, 설계 등을 통합적으로 차별화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단지에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실내 환경 통합 센서가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공기정정형 환기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단지가 들어서는 마송지구는 김포시 통진읍 일대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다. 총면적 98만9738㎡ 규모로 5919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용 예정 인구는



1만6202명이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모여있다. 실제 단지 바로 앞에 마송중앙초가 있다. 마송중·고교도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거리에 있다. 공원과 지구 내 상업시설도 가깝다.

특히 마송지구는 특별전형으로 대학교 지원이 가능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 행정구역상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해 놓여 촌특별전형과 고른기회전형 등을 자녀의 대학 지원 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뉴고려병원 인근에 마련된다. 2021년 7월 입주 예정이다.

다산신도시 마지막 공공분양...3기 왕속지구 인근

대우건설 다산신도시 자연앰푸르지오

대우건설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다산신도시에 들어서는 마지막 공공분양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앰푸르지오'를 이달 공급한다.

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 4블록에 들어선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10개 동에 총 1614가구(전용면적 51·59㎡)로 구성된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단독 시행하는 신도시급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지구다. 지금지구와 진건지구를 합쳐 총면적 475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왕속지구 일대와 함께 수도권의 매머드급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다산신도시 자연앰푸르지오는 지금지구 내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구리IC를 이용해 외곽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거쳐 갈 수 있어 강변북로 이동도 수



월하다. 왕속천·문령산·황금산 등 51만㎡의 녹지공간과 5개의 친환경 공원이 주변에 들어서 있다. 금교초·미금중·도농중·동화고 등을 도보로 다닐 수 있다.

단지는 지금지구 중심상업지구 인근에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다. 이마트 다산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예정)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제2청사, 경찰서, 교육청 등 행정·법조타운(예정)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옛 MBC 부지에 터 잡은 주거용 오피스텔

신영·GS건설 브라이튼 여의도

서울 여의도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달 본격 분양된다.

신영·GS건설·NH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여의도 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짜리 4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849실(전용면적 29~59㎡)과 아파트 454가구(전용 84~136㎡), 오피스 및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별로 △29㎡ 632실 △44㎡ 90실 △59㎡ 127실로 구성된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의 중심 입지에 들어서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여의도환승센터도 도보권에 있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우선 내년에 대규모 복합문



화공간인 '파크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총 63만여㎡ 면적에 지하 7층-지상 69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과 판매시설, 호텔 등으로 이뤄진다. 준공되면 '서울국제금융센터(IFC)-파크원-브라이튼 여의도'로 이어지는 여의도 랜드마크 삼각벨트를 형성할 전망이다.

GTX 노선도 뚫릴 예정이다. 여의도를 지나는 GTX-B 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1km 길이의 광역급행철도다. 내달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도 호재다.

견본주택은 강남구 역삼동에 마련된다. 2023년 4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 시 고속도로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포스코건설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포스코건설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C1블록에 들어서는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아파트를 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5층짜리 12개 동에 총 1396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 △59㎡ 48가구 △76㎡ 479가구 △84㎡ 869가구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장과 함께 포스코의 상징인 철과 암석, 꽃들이 어우러진 휴게공간 '더샵 페르마타(Fermata) 정원' 등 특화된 조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키즈룸,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지역 내 타 단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우나시설 및 실내 체육관도 들어선다.

단지가 위치한 C1블록은 광주시에서도 판교·분당 신도시와 가장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현대백화점·이마트 등 판교·분당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3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 제2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쉽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서울-안성 구간이 2022년 개통하면 오포IC를 통해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투기과열지구 아니어서 가구수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6개월이면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분당 아파트의 노후화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확장으로 광주 오포지역이 판교·분당의 대체 주거지로 눈길을 끄는 만큼 미래가치 역시 높다"며 "더샵 스마트기술 브랜드 '아이큐텍(AiQ TECH)'의 기술력으로 지역을 대표할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7월로 잡혔다.

<1차분>

포항 교육·교통 알짜입지...계약금 500만원

SK건설·대우건설 두호 SK뷰 푸르지오

SK건설과 대우건설이 포항시 두호동에서 '두호 SK뷰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14개 동에 총 1321가구(전용면적 74~84㎡) 규모다.이 중 65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바로 앞 두호남부초등학교를 비롯해 포항고를 도보권에 두고 있다. 창포중·포항여중·포항여고 등도 가깝다. 하나로마트·홈플러스·롯데백화점·CGV·시립미술관 등도 이용하기 쉽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새천년도로와 포항IC 등이 가깝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과 포항고속버스터미널, KTX 포항역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및 타워형의 장점을 살린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알파룸(일부 가구), 복도팬트리(일부 가구) 등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대지면적의 35%가량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 단지



안에 다양한 휴게 및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어린이집·피트니스·실내골프장·독서실·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무인택배시스템·홈네트워크시스템·원격점검시스템·무인경비시스템·지하주차장비상벨 등 생활 편리성과 보안에도 힘썼다.

다양한 금융 혜택도 주어진다. 이 아파트의 1차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계약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다.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다.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잔금(분양가의 30%) 중 일부(분양가의 20%)는 입주 2년 뒤에 치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2020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바로 입주 가능한 부산신항 후분양 단지

부영 부산신항만 사랑으로 부영 6단지

부영그룹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들어선 '부산신항만 사랑으로 부영 6단지'(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 중이다.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6단지는 지하 1층-지상 15~25층짜리 7개 동에 539가구(전용면적 84㎡) 규모다.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 원에 월 임대료 7만 4000원이다.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부산신항만 사랑으로 부영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부산신항이 2020년까지 944만㎡의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향후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등으로 물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인 만큼 항만·물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출퇴근이 가장 용이한 단지로 꼽힌다.

이 밖에도 서부산 지역의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보매연구지구 등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서 미래 가치도 높다.



신항 제1·2배후도로, 김해국제공항, 신항 배후철도, 신호대교, 을숙도대교, 부산-창원 간 국도2호선, 부산역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상상·하단-신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편리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을숙도, 가덕도 등 천혜의 자연경관도 조성돼 있다.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6단지 공급으로 추후 공급 예정인 단지까지 건설되면 부산신항만 배후도시에 6500여 가구 규모의 '부영 타운'이 들어서 대단지 프리미엄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이곳은 독립료리집

100년 전, 낯선 땅에서
독립투사들이 연명하기 위해
먹었던 끼니를 소개합니다

김구 선생의 대나무 주먹밥부터
지복영 선생의 파전병까지

그분들이 드셨던 한 끼를 먹으며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이곳.

독립료리집이 6월 19일부터 한 달간
익선동 한옥 거리에 문을 엽니다

100년 만에 되찾은 식탁
독립료리집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2019. 6. 19-7. 21 |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70-1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커피 대신 소통, 이윤 대신 공감...국회 ‘별다방’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 ‘오(Oh!)카페’ 1개월

“이 공간을 왜 아깝게 쓰냐” 아내 제안 따라 개방형 회의실로 원목 테이블, 노란 조명, 음악...“배우 출신 참신한 시도” 평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원내대표실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당 원내대표의 사무실이라면 흔히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까? 정치를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딱딱해 보이는 회의테이블과 오래된 디자인의 의자, 권위적인 모습의 ‘회장님 소파’가 놓여진 풍경이 그려진다. 일반적으로 머물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은 아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무실은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사무실이라고보다는 근사한 ‘카페’를 연상케 한다. 원내대표실 한쪽에 자리하고 있던 소파를 치운 자리에는 노트북을 올려둘 수 있는 카페용 원목 테이블을 설치했다. 노란색 조명에 잔잔한 음악도 흐른다. 원내대표실 한쪽 구석에는 각종 음료수가 담긴 냉장고와 커피 머신도 있다.

이곳엔 ‘오(Oh!) 카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 원내대표가 한 달 전인 지난달 18일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출입기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오 원내대표는 “작은 공간이지만

국회 본관의 별다방으로 만들어 볼 참”이라며 “우린 커피 대신 ‘소통’을 팔고 이윤이 아닌 공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을 맞은 ‘카페 원내대표실’은 지난 1개월간 소통 창구로 요긴하게 활용됐다. 그는 매주 화요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차담회 형식의 미팅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도 이곳에서 만났다. 그는 “공유·공감은 21세기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다. 그 가치는 권위의 담벼락을 허물거나 또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가치가 실현되려면 먼저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오 카페’는 이런 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실 한쪽을 카페 스타일로 바꾸는 방안은 그의 아내 유정미 씨의 의견이다. 취임 직후 원내대표실 사진을 보고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 젊은 느낌이 전혀 안 든다. 개방형 회의실을 만드는 게 어때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을 보고) 아내가 기겁을 하더라. 이 공간을 왜 아깝게 쓰냐고 하길래 활용도를 높여보자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연극배우 출신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실을 카페처럼 바꿔보겠다는 ‘참신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도 오 원내대표가 예술인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오 원내대표는 “제가 연극배우를 했기 때문에 소통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이나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늘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찾아서 실

행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카페’가 마련된 이후로 1개월간 당 안팎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대체로 기존 정치권과 구별되는 바른미래당의 ‘젊은 감각’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오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오 카페’를 활용한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작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을 준비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산되는 ‘아이디어 팩토리’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배조용 국민레미콘 대표
‘7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7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레미콘제조업체인 국민레미콘(주)의 배조용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배조용 대표는 1998년 대표이사로 취임 후 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자산으로 레미콘 품질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취임 초기부터 연구 개발에 꾸준히 투자했다. 저발열·고강도·고성능 콘크리트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배치플랜트 증설 등 철저한 납기 관리체계 구축 성과에 힘입어 인수 당시 30억 원 선에 머물던 연 매출액이 현재 180억 원까지 성장했다.

2017년에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 등으로 불량 레미콘 논란이 일자 업계에 설득해 품질 담당자 대상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품질 교육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씨티케이코스메틱스 공동대표 최선영



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입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최선영 부사장을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선영 신임 공동 대표이사는 씨티케이코스메틱스의 국내 총괄 경영을 수행하게 된다.

화장품 업계에서 14년 이상 경험을 쌓은 최 공동대표는 비디비치코스메틱의 마케팅 총괄을 맡았으며, 2009년부터 씨티케이코스메틱스의 제품 기획 및 영업 총괄직을 역임했다.

이정희 기자 ljh@

박영선 장관, 이정동 靑과학특보와 대전청사서 ‘축적의 길’ 북콘서트



박영선(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대전청사 3동 2층 대회의실에서 ‘박영선 장관과 저자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날 ‘축적의 길’을 펴낸 이정동 저자의 강연과 함께 북 콘서트에 참여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이정동 작가는 현재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작가가 교수 시절에 쓴 ‘축적의 길’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축적의 길’은 국내 산업구조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모아놓고 있으며, 실패와 경험을 쌓아두면 새로운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축적의 시간’ 후속작이며, 한국 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경제 정책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훈 기자 yes@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나라사랑 장학생’ 2300명 돌파

순직·공상 소방·경찰관 자녀 대상 2012년 시작...총 장학금 30억 넘어



정몽구 현대차 회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2012년부터 시작한 ‘온드림 나라사랑 장학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소방관·경찰관 자녀의 수가 2300명을 넘어섰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나라사랑 장학금’은 특수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은 가장이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취지에 맞게 재단은 일찍부터 소방청, 경찰청과 협력해 공정한 심사로 매년 학습비가 필요한 자녀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12년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로 대상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누적

장학생 수는 2300여 명, 장학금 총액은 30여억 원에 이른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고, 진정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2004년 화재 진압 도중 공상을 당한 한 소방관은 “수술을 하게 되면서 느낀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힘들었지만, 전화위복처럼 우리 아이가 2014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담감과 미안함을 줄일 수 있었다”고 재단 수기 공모전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화건설 ‘꿈에그린 도서관’ 85호점



한화건설은 16일 대전 도마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에서 ‘꿈에그린 도서관’ 85호점 개관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도서관 조성사업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만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화건설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에 꿈에그린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내년 말까지 100호점을 개관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효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올해로 7년째

중로인력개발센터에 7000만원 전달

효성이 7년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효성은 17일 경력단절 여성, 여성 가장, 중장년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해 서울 중로구 중로여성인력개발센터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중로인력개발센터의 급식 조리 전문가, 사회복지실무자, 돌봄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후원해 온 효성은 올해도 후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약 200명의 여성이 새로

운 일자리를 얻었다.

올해는 6월부터 약 3개월간 40여 명의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의 ERP 물류사무관리원과 돌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전담 직업상담사와 정기적인 취업상담 구직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변효선 기자 hsbun@

부음

‘미연방대법원의 전설’ 스티븐스 前대법관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설’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99세를 일기로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1975년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임명돼 2010년 90

세의 나이로 사임할 때까지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동성애자, 총기 제한, 낙태 권리 등을 옹호하고 사형제도에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가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였다. 지난해 그는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뉴욕타임스(NYT) 오피니언 면에 게재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변일량 씨 별세, 변정출(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신출(선우로보텍 팀장) 씨 부친상, 성연윤(이래오토모티브 사원)

·이현진(주은전력 대표) 씨 장인상 = 16일, 대구 가톨릭대병원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053-650-4444

▲서건석(전 반도라이온스클럽 회장·전 수도그룹 회장) 씨 별세, 서철원(주케이 캠프 대표이사)·주원(주수도.S.I 대표이사)·람원·양원 씨 부친상, 최희송·이형숙 씨 시부상, 김주환(수원성모안과 원장)·남기수(주태원물산 감사) 씨 장인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40분, 02-3010-2291

▲박정자 씨 별세, 흥성인(S&T중공업 경영지원부부장·이사) 씨 모친상 = 17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병원 장례식장 특

2호, 발인 19일 오전 7시, 055-345-1444

▲고병진 씨 별세, 차정선(KEB하나은행IPC센터장) 씨 모친상, 김도연(문화일보 전국부 부장)·최영식(전 BNE부사장)·김호성(전 뉴욕생명 전무) 씨 장모상 = 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김선에 씨 별세, 김숙영 씨 모친상, 박상규(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씨 장모상, 박태영(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차장) 씨 외조모상 = 1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02-2227-7566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팀장급 전보 △외교정책팀장 김일석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산업재단담당관 최석진

◆방위사업청 ◇과장급(서기관) 임용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김석

일본시장 속으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일본이 서구를 받아들이고 극복했듯이, 한국도 일본을 극복해가고 있다. 현대차는 미쓰비시의 기술을 토대로 시작했지만 이제 자체 엔진 기술로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세계를 제패했다. 지금의 한국은 100년 전과도 1965년과도 다르다. 한국은 강해졌고,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몇몇 조치는,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 한국의 힘을 견제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서 잊힐 뿐이다. 현실에서 멀어진 과거는 무의식 속에 남아 있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면 의식 위로 떠오른다. 일본 아베 정부가 시작한 도발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과거를 수면 위로 떠올렸다. 우리 사회에 '일본은 이웃인가? 아니면 적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우리에게 재론의 대상은 아니었다.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았고, 일본도 한국 내 재산을 포기하고, 줄 것을 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상 채권, 채무만을 다루었을 뿐 개인의 손해와 고통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 지점을 향해 있다. 끝난 문제를 다시 꺼낸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 기업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도 있다. 해방 이후 일본이 남긴 수많은 적산(공장, 점포, 기계, 가옥 등)은 한국 정부로 귀속되었다. 미 군정은 1947년부터 적산을 불하하고, 불하받는 민간인들에게 자금도 지원한다. SK는 일본의 군복을 생산하던 선경직물회사의 직원이었던 최종 건이 적산을 불하받은 것이었고, 한화는 조선화

약공판회사의 지배인이었던 김종희가 낙찰받아 한국화약을 설립한 것이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역시 일본의 돈과 기술이 큰 기여를 했다. 대표적으로 포항제철도 일본의 기술과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규모가 크건 적건, 적산 불하받은 민간인들이 이후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 경제는 깊게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은 일본을 카피하면서 발전했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1853년 개국 이래 서구 열강과 마지못해 불평등 조약을 맺는다. 일본은 이의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국력을 배양하고, 이후 대륙으로 나아간다. 일본의 국제화는 한마디로 서양을 복사, 불이기한 것이다. 일본이 서구를 받아들이고 극복했듯이, 한국도 일본을 극복해가고 있다. 현대차는 미쓰비시의 기술을 토대로 시작했지만 이제 자체 엔진 기술로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세계를 제패했다. 지금의 한국은 100년 전과도 1965년과도 다르다. 한국은 강해졌고,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몇몇 조치는,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 한국의 힘을 견제한 것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갈등을 이를 빚대어 우려하기도 하지만 상황은 다르다. 일

본은 미국이 아니다. 실제 일본의 규제 방향은 우리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를 비껴가고 있다. 일본의 규제로 삼성전자와 SK반도체의 생산 차질이 뒤따른다면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투자 사이클은 흔들리게 되고, 이는 일본이 감당하기 힘들다. 힘의 역사는 바뀐다. 오랜 한일 교류를 보면 한국은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배우는 입장이었다. 고대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본은 한반도를 통하여 대륙의 지식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우리를 압도했다. 대륙이 아닌 해양 세력의 변화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필자는 일본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다. 첫 일본 여행 중 기도쿠니야 서점에서 봤던 충격을 잊지 못한다. 투자 관련 서적 대다수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여전히 번역보다 원본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무단 인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한국이 답답할 뿐이다. 기초과학이 부실하고, 제대로 된 번역서 한 권보다 짜깁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실이 한국을 뒤처지게 한다. 일본은 조선을 통해 한자와 불교를 배우고, 네덜란드어로 서양을 받아들이고, 이

후에는 영국의 정치제도와 독일의 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모든 원동력은 바로 그들의 흡수 능력이 있다. 일본은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의 언어로 내면화하고 재창조하는데 능숙하다. 한국의 번역문화와 기초과학은 여전히 일본에 한참 못 미친다. 여전히 일본이 극복해야 할 대상인 이유이다. 일본은 우리와 언어 구조도 비슷하고, 용모도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미심쩍어한다. 일본이 법적 잣대로 우리를 기망한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이후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을 조공국에서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 바꾸어 불렀지만, 실제로는 조선에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자. 일본은 1875년 강화도 사건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만국공법'이라는 국제법 관련 도서를 출간했다. 자신의 언어로 국제법을 이용했고, 우리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지적 토대는 여전히 부족하다. 무형자산의 시대, 이제 '극일'은 지식 산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다. 여기서 수요란 인구와 소득을 말한다. 인구와 소득의 증감에 따라 당연히 수요는 변한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수요 대비 도시공간이 부족한 곳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공급을 멈추고 수요를 늘리는 데 치중한다. 도시재생이란 기본적인 도시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일자리, 주택, 문화, 건강, 그리고 인구(출산 장려와 이민 유입) 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진국 도시재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남다른 출산 장려다. 이들 나라에선 육아시설을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공공이 보유한 공간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년 내내 24시간 가동 가능한 보육시설을 무료로 확보한다. 스웨덴의 경우 부

모가 보육시설 이용료의 3%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선진국일수록 도시재생에 이민 유입을 적극 활용한다. 선진국 중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도 1.9명 수준으로 인구 유지선 2.1명에 못 미친다. 그래서 선진국은 양질의 이민 유입으로 인구 증가, 생산과 소비증 확보, 연금 유지, 인구 감소 도시의 인구 유치를 꾀하고 있다. 적극적인 이민 유입은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 유치, 산학 협동, 리서치 클러스터, 창업 혁신경제센터 등을 조성하는 데 치중한다. 특히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형 일자리 공간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몰두한다. 도시 직장인에게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도시재생이 할 일이다. 잘나가는 대도시에는 저렴한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 이유는 용적률과 용도를 규제하는 zoning(조닝) 계획 때문이

다. 영국은 젊은 직장인을 위한 주택 공급의 속도가 나지 않아, 일정 기준만 갖추면 비어 있는 공간을 인허가 없이 주택으로 전환하는 PD(Permitted Development) 권한을 민간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건강한 환경을 미리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2030년이면 명실상부한 자율주행 탑승공용(대부분 택시) 시대가 열린다. 도시 거주 선호가 늘면서 도시 내 전철 이용도 증가한다. 킥보드 같은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가 단거리 택시 이동의 절반을 대체할 전망이다. 또한 도시재생은 제로 파킹(Zero Parking) 혹은 레스 파킹(Less Parking)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도심에 새로 짓는 건물의 주차장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안 짓고 있다. 포틀랜드 시의 바이브러트 시티스 프로젝트 호텔과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차장이 한 대도 없다.

도시재생에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된다. 미국은 저소득층 지역 8700여 곳을 선정, 이곳에서 민간자본이 일자리를 창출과 주택 공급 및 개선 사업 등을 7~10년 이상 지속할 경우 세금을 감면 내지 면제해주는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도시재생은 도시 경쟁력을 중시한다. 공간 수요가 필요한 도시는 그에 맞게 공급하고, 인구 감소 도시는 기존 자산을 재활용한다. 일본 도쿄 도심과 임해지역의 도시재생 특구는 인프라 기능 수용 시 17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뉴욕 맨해튼 인근 철도기지를 개발하는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미국 민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용적률이 3300%이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콘텐츠도 반영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임계 질량(Critical Mass) 방법을 도시재생에 적극 채택해야 할 때다.

☆ 넬슨 만델라 명언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흑인들의 인권 찾기를 위해 싸우다 체포된 그는 27년간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인권 운동을 펼친 결과 '인종차별 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18~2013.
☆ 고사성어 / 궁즉통(窮則通)
궁하면 곧 통한다는 뜻. 극단의 상황에 이르르면 도리어 해결할 방법이 생긴다는 말이다. '궁즉변 변즉통(窮則變, 變則通)'의 줄임말로 주역(周易) 계사하전(繫辭下傳)에 나온다. "역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한다. 이로써 하늘이 도와 길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다[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 시사상식 / 에이트 포켓(Eight Pocket)
한 아이를 위해 부모, 양가 조부모, 삼촌, 이모 등 8명이 지갑을 연다(아이를 위한 지출)는 뜻의 신조어. 이런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한 가구의 자녀가 1명 또는 2명으로 줄어들고 경제력 있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귀한 손자, 손녀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게 된 것에서 비롯됐다.

도시경쟁력 키우는 도시재생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금융회사가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면 오히려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에 날린 일침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우산을 뚫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치 금융 비난이 뻗는데도, 윤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한 말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은행권의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안전빵 영업' 때문이다.
상반기 은행권의 제조업 중기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조5000

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중기 대출 증가 폭(3.8%)의 절반 밖에 안 된다. 더욱이 자금 수혈이 시급한 조선, 자동차업에 대한 대출은 하나도 늘지 않았다.
"아쉬울 때마다 생산적 금융에 힘쓰겠다"는 말이 공명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문제는 은행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다. 신용을 평가하려면 '귀찮기' 때문이다. 신용평가회사(CB) 자료부터 거래실적, 고객정보 등을 모두 들여보아야 해 공이 많이 든다. 떠안아야 할 위험 부담도 크다. 계산기에 담보 가치만 입력하면 빌려줄 액수가 바로 나오는 담보대출과 다르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진정한 우산이 돼주는 은행의 포용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

☆ 유머 / 개밥
식당에서 한 손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와 식당 주인에게 "엄마, 개한테 밥 안 줘?"라고 했다. 식당 주인은 "조금만 기다려. 저 손님이 먹고 남긴 거 줄게"라고 말했다.
아이는 손님을 뺀히 지켜보다 밥과 반찬을 남김없이 먹자 울며 소리쳤다. "엄마! 손님이 개밥까지 다 먹어버렸다 말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선현 금융부/sunhyun@

은행을 향한 윤석현의 이유있는 일침

이투데이 2019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 CEO 리엔홍

대륙의 혁신자, 이젠 "AI에 올인"

바이두(百度, Baidu)는 중국 검색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는 중국의 대표 검색포털 기업이다. 바이두의 주도적인 검색엔진은 뉴스를 비롯하여 유명인들에 대한 가십과 지역에 기반을 둔 지도, 그리고 음악을 원스톱 습에서 제공하고 있다. 바이두닷컴(Baidu.com)은 중국 온라인 기업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업으로서 맞춤형 온라인 광고가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2005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후 바이두의 주가는 1200% 상승하여, 바이두 시가 총액은 2015년에 8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날 알아준 사람 위해 목숨을 버린다"

바이두는 현재 쇼핑을 비롯하여 금융, 게임, 영화, 택시, 부동산 시장 등에 뛰어들었고, 전자상거래와 콘텐츠 분야에 진출하며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무인자동차 개발 등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선두주자이다.

바이두의 CEO 리엔홍(李彦宏)은 상인국가 중국에서도 상인의 전통이 특별하게 강했던 산시성(山西省)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에 희곡에 깊이 빠져있던 그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하여 중국 최고 명문대인 베이징대학교의 도서관정보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당시엔 텐안문 사태 전야로서 베이징대학은 매우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였다. 특히 도서관정보학은 그에게 너무 무료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는 분야였다. 그는 반드시 미국에 유학해 컴퓨터공학을 배우고자 결심하였다. 낮에는 학교 수업을 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 매일 새벽 두 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너무 힘든 시절이었다. 하지만 젊을 때의 고생은 견뎌야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버팔로에 있는 뉴욕주립대학 컴퓨터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의 유학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전공도 바뀐 상태로 교과목은 너무 많았고, 영어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전의 연속이었다. 교수들도 그런 그를 아예 포기했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일본 기업인 마쓰시타 회사에서 석달 동안 실습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정보기술(IT)에 대해 개안(開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IT 업계의 정수를 이해하게 된 리엔홍은 당시 IT 업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된 논문을 권위 있는 학술잡지에 게재하였다.

그 뒤 그의 능력을 알아본 월가의 한 IT 기업 경영자의 우정 어린 권고로 그 기업의 고위 자문역으로 일하게 되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士為知己者死)." 이것이 당시 그의 각오였다.

승패 결정짓는 것은 IT 아닌 商戰 策략

월가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뒤에는 실리콘밸리의 검색업체로 옮겼다. 실리콘밸리에서 그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

은 바로 치열한 상전(商戰), 즉 상업전쟁의 분위기였다. 그는 "본래 기술 자체는 유일한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상전의 책략이야말로 승패를 결정하는 진정한 요인이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2000년 1월 1일, 베이징 중관촌(中關村)에 인터넷검색 사이트 회사 바이두닷컴을 차렸다. 바이두는 남송 시대 시인 신기질(辛棄疾)의 시 "衆里尋他千百度(사람들 속에서 그녀를 천백 번 넘게 찾았네)"에 나오는 '백도(百度)'로부터 비롯된 말이며, 검색엔진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이 과정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바이두역시 다른 모든 인터넷기업들이 직면하는 핵심 문제

하지만 리엔홍의 판단은 결국 정확했다. 지금 바이두 온라인 사이트는 최대의 중문 검색엔진이자 세계 2위의 검색엔진으로서, 세계 10대 온라인 사이트 중 하나이며 중국 네티즌의 95%가 이용하고 있다. 당연히 바이두는 중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업광고의 수단으로 성장하였다.

예지, 통찰력 그리고 과감함과 소통

리엔홍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특징을 '예지(叢智)'로 표현한다. 그가 기술적인 배경만이 아니라 상업이라는 전쟁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예리한 직관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는 유능한 CEO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네 가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시장 상황의 추세에 대한 통찰력

이다. 1년 혹은 2년 후의 시장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같은 문제를 물어야 한다. 그 답이 비슷하다면, 당신은 이미 낙후한 것이다.

둘째, 과감하게 시장 기회를 움켜쥐어야 한다. 일단 결론이 났다면 곧바로 해결에 착수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누구보다도 잘 해결해야 한다.

셋째, 극도의 소통 기교가 요구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발전시키며 변화시키고 격려하는 데 뛰어

나야 하며, 이로써 양호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복잡하고 미묘한 환경 속에서 일련의 종합적인 사고의 정책결정을 통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임기응변으로 찾아내거나 혹은 개발해야 한다."

인터넷서 인공지능 사고방식으로

2018년 1월 19일 타임지 아시아판은 표지인물로 리엔홍을 선정하면서 그를 '혁신자(The Innovator)'라고 지칭하였다. 타임지가 아시아의 온라인 기업가를 표지인물로 선정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타임지는 특히 중국에서 리엔홍보다 더 인공지능을 중시하는 인물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바이두의 총수입은 90억 달러였는데, 이 중 약 12억 달러를 곧바로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했고 그 대부분은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 투입되었다. 실제 바이두의 2017년 전략은 "AI에 올인!"(All in AI!)이었다.

리엔홍은 이제 인터넷 사고방식에서 다시 인공지능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가령 인터넷 사고방식으로 교통신호등을 조정한다면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 10~15% 절약되지만, 모든 것을 수치화하여 실시간 반영하면서 조정하는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으로 조정한다면 신호기다리는 시간이 30~40% 절약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바이두연구원은 최근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과감하게 영입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바이두와 그 CEO 리엔홍은 인공지능, AI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리엔홍 바이두 회장 겸 CEO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8 바이두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리엔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바이두가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와 협력하여 자율 주행 능력을 갖춘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AP뉴스



리엔홍 바이두 회장을 표지인물로 선정한 2018년 1월 19일 타임지 아시아판.



리엔홍(왼쪽) 바이두 회장과 전 NBA 농구선수 아오밍이 지난해 12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회의에서 유공자 표창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스

인 수익모델 창출이라는 난관에 부딪쳐야 했던 것이다. 그는 2001년 바이두 이사회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키워드 형식을 통하여 바이두의 검색엔진에서 그 효과에 따라 지불하는 광고 방식(가격경쟁순위모델, 競價排名)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모든 주주들이 반대하였다. 당시 리엔홍은 난생 처음 가장 크게 화를 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주주들이 그의 뜻을 따랐는데, 그때도 주주들은 "당신의 태도 때문이지 당신의 논리가 우리를 설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완전하게 심복(心服)하지는 않았다.

사설

혁신 거리면 택시 개편안, 제대로 보완해야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차량·요금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정부가 초고령 택시 위주로 매년 1000개 이상의 면허를 매입해 감차(減車)하면서,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면허를 얻기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웨이고'나 '카카오T' 등 가맹사업·중개형 플랫폼 도입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방어도 추진한다. 법인택시의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도 쉽게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이를 위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규제혁신형 플랫폼의 렌터카 기반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타다'의 사업방식인 렌터카 이용 차량호출 서비스가 불법화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해 필요한 운영대수만큼의 택시 면허를 대여받고, 차량도 직접 구입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지금과 달리 운전자는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택시업계의 심한 반발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혁신형 플랫폼 사업은 택시 면허를 사기 위한 기여금에 차량구입비까지 투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택시회사를 차리는 꼴이나 다름없다.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우버' 등 외국의 혁신적인 차량 공유서비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이룸만 바꾼 사실상의 택시 서비스다. 혁신과 거리가 멀고,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플랫폼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요금규제 완화 또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성안심·자녀통학·실버케어 등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려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내세웠지만 택시업계에 편향된 정책방향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좀 더 공유경제의 혁신성을 살리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과 택시업계,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의 제거, 자율성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다.



설욕(雪辱)

16일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11승을 이루지 못했다. 많은 언론들이 설욕전에 실패했다는 보도를 했다. 설욕은 雪辱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눈 설', '욕 욕'이라고 훈독한다. '눈 설(雪)' 자는 더럽고 부끄러운 것마저도 다 덮어버림으로써 온통 하얀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씻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욕(辱)은 욕설(辱說) 즉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어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雪辱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다 씻어버린다는 뜻이다.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레드삭스 팀에 패한 것을 그처럼 부끄럽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언론은 '설욕전'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설욕전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을 상대로 한 설욕전 말이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욕전을 철저히 준비하여 1910년의 경술국치가 없

도록 했어야 했고, 경술국치에 대한 설욕전을 이를 악물고 준비하여 지금쯤은 우리의 국력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서 언제라도 일본을 제압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조금 잘살게 되자, 긴장이 확 풀어져서 설욕전을 치를 준비를 잊은 채 '소강(小康)'에 만족하여 안이하게 살아온 점이 없지 않다. 그 결과, 일본은 임진왜란 때나 경술국치 때와 똑같은 행태로 역시 구실을 대며 막무가내 덤벼드는데 우리에게 일본을 제압할 뾰족한 대책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국론은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심지어는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서슴없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한심한 일이다. 설욕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설욕은커녕 다시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 부끄럽지 않도록 현실은 현실대로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민족적 기상과 기강을 바로 세우 설욕전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어제 엄마랑 은행에 갔습니다”
엄마가 손만 대니까 돈이 나왔어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국내 금융사 최초,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통장, 도장, 신분증 없이도 금융이 쉬워지도록
창구거래는 손바닥으로 해결하고, 행복한 일상만 즐기세요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